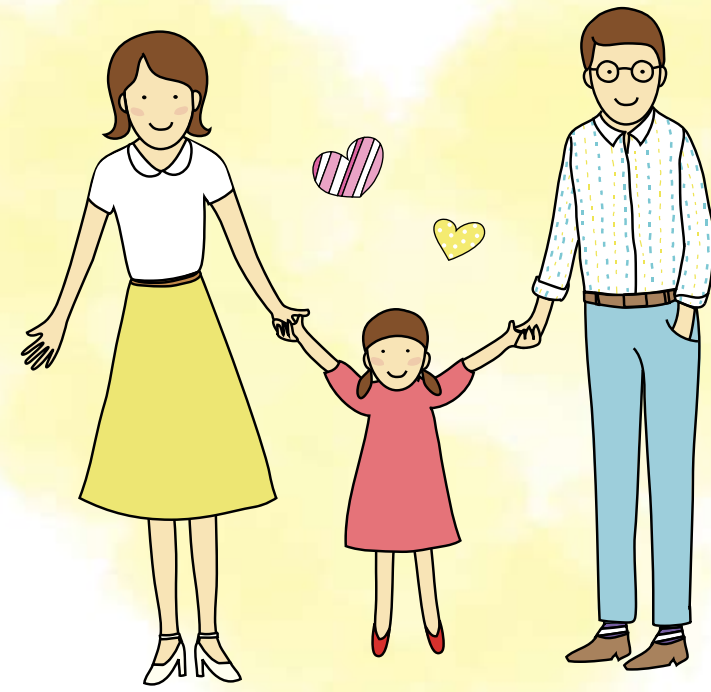




국민이 만든 행복 이야기



국민행복제안 이야기 책

국민이 만든
행복 이야기



국민행복제안 이야기 책

국민이 만든 행복 이야기





국민이 만든 행복 이야기

이 책에 담긴 내용은 국민행복제안센터의
실제 제안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영정심판·제도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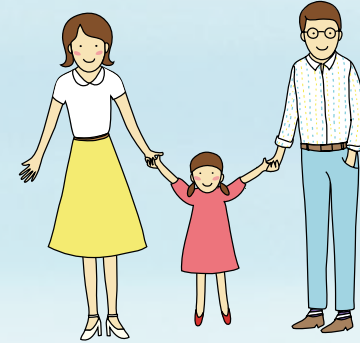
“행복이야기를 만든 주인공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국민들께서 내어 주신 소중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결실을 맺어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 책을 엮을 수 있었습니다.

2013년 5월에 개소한 범정부 온오프라인 제안창구인 국민행복제안센터는 국민들께서 생활 속에서 착안한 행정개선 아이디어를 정부업무에 반영하여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회 각 분야 여러 계층의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참여단을 구성하였고, 국민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해당기관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을 평가하는 체계도 개선하는 등 국민행복제안의 정착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동안 국민행복제안센터에는 약 22만 건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그 중 8,471건이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려는 각 행정기관의 의지를 더하여 함께 이룬 것입니다. 국민행복제안센터를 국민과 정부의 원활한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주신 국민들과 각 기관 담당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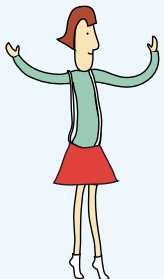
이 책은 국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나온 다양한 제안 중 각 기관에서 채택되어 실제 행정에 반영된 20건의 사례를 이야기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면의 한계로 모든 사례를 실을 수 없었지만 소중한 제안을 제출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과 이 제안을 토대로 실제 국민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직자 모두 국민행복시대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정책과 제도는 저마다 다양한 목적과 필요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만들어진 정책과 제도라 하더라도 사회 환경이 변화하면서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없이 성공적인 정책을 만들기는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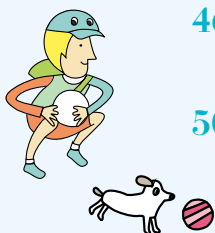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행복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국민들께서도 생활의 작은 불편들, 사회 곳곳의 크고 작은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행복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5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 성 보



- 06 보건복지부, 부당경량아 및 자궁 내 성장지연아에 대한 성장호르몬제 보험 적용
성장지연아 지민이의 키 성장 프로젝트
- 12 금융위원회, 타행 자동이체 시 하루 전 인출 관행 개선
이자 손해 보는 타행 자동이체,
당일 인출 · 당일 송금으로 바뀌었습니다!
- 16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 연체료 부당 부과 규정 개선
불합리한 도시가스 연체료 정산 방식, 확 바뀐다!
- 22 병무청, 인터넷으로 징병검사 일자 · 장소 선택 시 본인 인증 수단 확대
불편했던 징병검사 본인 인증, 더 쉽고 빠르게!
- 26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
장애인도 휴양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 32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서비스 가능토록 개선
법인 휴대전화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어요!
- 36 대전광역시, 지하철 승강장 내 교통약자 배려석 마련
지하철 승강장에도 교통약자 배려석이 생겼어요!
- 40 국세청, 셀프주유소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 탑재
셀프주유소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요?
- 46 국방부, 육군훈련소 시설 개선 및 수료 행사 내실화
육군훈련소에서 가족들이 실망한 이유
- 50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
쾌적한 피서를 위해 만든 ‘해수욕장법’ 알고 있나요?



- 56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중소기업까지 입찰 공고 가능토록 개방 확대
공공기관만 이용하던 ‘나라장터’, 민간에 개방되다
- 6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자 범위 확대
농업인, 어업인 구분 없이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 66 울산광역시, 주민센터 및 경로당 등에 자전거 공기구입기 구비
자전거 출퇴근족을 위한 작은 배려
- 72 중소기업청, 온누리상품권 여러 장 사용 시 환불 규정 명확화
온누리상품권, 여러 장 써도 환불은 똑같이!
- 78 특허청, 청소년 우주탐험가 발명 프로젝트 지원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현실로
‘창의 발명 우주선 프로젝트’
- 84 서울시 중랑구, 어린이집 중심 영 · 유아 옷 공유 네트워크 구축
작아진 영 · 유아 옷 버리지 말고 교환합시다
- 9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신력 있는 의약품 정보 제공 앱 개발 · 보급
내가 먹는 약들,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합시다!
- 94 경기도 고양시, 개방화장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홈페이지 정보 공개
개방화장실 꼭꼭 숨기지 말고 모두에게 알려주세요!
- 100 법무부, 지자체 홈페이지와 연계한 ‘법률 홈닥터’ 홍보 강화
가난한 이웃을 위한 ‘법률 홈닥터’ 알고 있나요?
- 106 제주도 서귀포시, 이승악옴 생태탐방로 나무에 박힌 대못 제거
산책로 나무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성장지연아 지민이의 키 성장 프로젝트

학교에서 돌아온 초등학교 2학년 딸 지민이가 오늘도 나에게 매달리며 칭얼거렸다. 또래보다 유난히 작아 친구들보다 한참 동생같이 보이는 내 딸. 친구들 사이에서 한창 예뻐 보이고 싶을 나이일 텐데 늘 놀림만 받고 속상해하니, 내 마음이 더 아팠다. 임신 중에 엄마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날이면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든다.

지민이를 임신했을 때 임신중독증으로 고생했는데 그게 원인이었는지 배 속 아이도 잘 자라지 못했다. 결국 나는 임신 28주 만에 체중이 780g 인 지민이를 낳게 되었다. 남들은 3kg도 넘게 태어나는데 1kg도 못 되어 태어난 지민이는 초극소 저체중아로 인큐베이터 신세도 오래 져야 했다. 사실 살아 있는 게 기적 같은 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잔병치레도 하지 않고 오히려 또래보다 영민하고 똑 부러진다는 소리를 들으며 잘 자라준 기특한 아이다. 하지만 배 속에서부터 성장이 늦었던 아이는 태



어나서도 키가 잘 자라지 않았다. 아이에게 한 살 더 먹으면 키가 클 거라고 희망을 심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오매불망 키 크기만을 기다리는 아이가 안쓰러웠다.

“소아 성장호르몬 결핍증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지민이같이 유난히 키가 작은 아이들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될걸요, 아마?”

영·유아 정기검진을 받을 때마다 지민이의 키가 하위 3% 안에 들어 걱정하는 나를 보고 동네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제안했다. 그래서 몇 년 전,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큰 대학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키가 작은 건 맞지만, 지민이의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소아 성장호르몬 결핍증, 터너 증후군, 소아 만성 신부전, 성인 성장호르몬 결핍증, 프라더-윌리 증후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부당경량아나 자궁 내 성장 지연으로 인한 성장호르몬 치료는 보험 적용이 불가능했다.

우리나라는 소아 성장호르몬 결핍증, 터너 증후군, 소아 만성 신부전, 성인 성장호르몬 결핍증, 프라더-윌리 증후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만, 부당경량아나 자궁 내 성장 지연으로 인한 성장호르몬 치료는 보험 적용이 불가능했다. 물론 비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 형편에 연 1,000만원이 넘는 치료비는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눈물을 머금고 발길을 돌렸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함께 열심히 성장호르몬 치료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여보! 외국에서는 부당경량아나 자궁 내 성장 지연으로 인한 성장호르몬 치료도 보험이 적용된대.”

“그러게, 우리나라도 곧 보험이 적용될 거라고 하던데 아직 그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나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그렇게 한 해 두 해 우리나라도 보험이 적용되기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던 차, 얼마 전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을 때 담당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성장호르몬 치료를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지민이의 성장호르몬 치료를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성장판이 닫히기 전

에 치료를 시작해야지,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치료해도 소용이 없어요.”
청천벽력 같은 말씀에 더 이상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수 없어 내가 직접
나서보기로 했다.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지민이와 같은 성장호르몬 치료
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것
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반가운 답변이 왔다. 임신 주수에 비해 작게 태
어난 성장지연아의 치료에 대한 보험 급여가 가능하도록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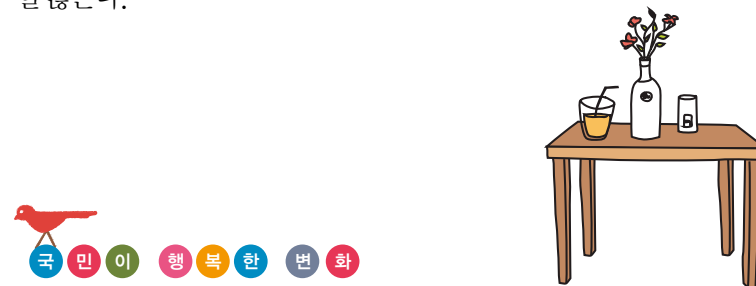
“어머, 여보! 어쩌면 우리 지민이 성장호르몬 치료도 보험이 적용될지도
모르겠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지민이의 경우도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
도록 검토하고 있대요.”

드디어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긴 것이다. 사실 지민이를 보며 걱정이 많
았다. 요즘은 외모도 경쟁력인 시대인데 키가 작다고 친구들에게 놀림
받는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고, 부모의 부족함으로 아이가 상처받
는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미안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풍족했다면 더
일찍 치료해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곧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고 생각하니 얼마나 설레고 기뻐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여보세요? 네, 제가 부당경량아 성장호르몬 치료에 대한 보험 급여를
제안한 사람인데요. 어머! 우리 지민이도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이렇게 빨리요? 정말 잘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 담당자
의 말로는, ‘출생 시 체중이나 신장이 하위 3% 이하인 소아 중에 만 4세
이후에도 신장이 3% 이하’이면 성장호르몬 치료도 보험 적용이 가능하
게 되었다고 한다. 덕분에 우리 지민이도 마음 놓고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아, 정말 기쁘다. 더 이상 친구들에게 놀림받지
않고, 키 크고 늘씬해질 딸아이의 미래를 상상하니 입가에 미소가 떠나
질 않는다.



큰 키가 사회적으로 하나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키가 작고 왜소한 아이의 부모는 혹시나
자신의 아이가 또래 사이에서 기죽어 지내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또래보다 현저히 작게 태어난 아이가 4세 이후에도 다른 아이들의 성장을 따라잡지 못하고
현저한 저신장 상태에 머물러 있는 증상을 '부당경량아(SGA성 저신장증)'라 한다.
이러한 저신장 아이들은 성장호르몬 치료를 통해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지만
고액의 치료비가 부담되어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는 일이 많았다.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국민의 제안을 접수한 보건복지부는 연령 및 신장 등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부당경량아에 대한 성장호르몬 치료에도
급여가 인정되도록 건강보험 급여 제도를 개선했다.

이자 손해 보는 타행 자동이체, 당일 인출 · 당일 송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는 지수씨는 가게 월세를 매달 말일 지급한다. 매번 은행에 가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는 게 번거로워 은행에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해놓았다.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체되니 가끔씩 확인만 하면 되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통장을 정리하고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다.

“어? 가게 월세 자동이체를 23일로 신청했는데, 돈은 왜 22일에 인출되는 거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한 지수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남편과 대화하다가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





우리처럼 마이너스통장 쓰는 사람들은
통장에 하루라도 돈이 많이 있어야
이익인데, 그렇게 하루 전날 돈을 빼 가면
하루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할 거 아냐.

“여보, 우리 가게 월세 말이야. 그거 내가 분명히 매달 23일에 인출되도록 신청했는데, 통장 정리를 해보니까 하루 전날에 인출되더라. 왜 그런지 알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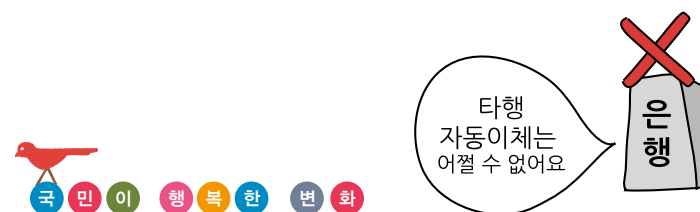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돈이 하루 먼저 인출되면 우리가 손해 아닌가? 우리처럼 마이너스통장을 쓰는 사람들은 통장에 하루라도 돈이 많이 있어야 이익인데, 그렇게 하루 전날 돈을 빼 가면 하루 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할 거 아냐. 그렇지 않아? 그게 매달 반복된다면 좀 아까운 걸? 은행에 가서 물어보는 게 어때?”

“아, 그런가? 나는 그 생각을 못 했네. 역시, 남편에게 물어보길 잘했어. 어휴, 괜히 손해 보면서 월세 낼 뻔했잖아. 내일 당장 은행에 가서 물어볼게.”

다음 날, 지수씨는 은행개점 시간에 맞춰 은행에 찾아가 자동이체 신청

날짜보다 하루 먼저 인출되는 이유를 물어보았다. 은행에서는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인출되어왔으니 양해해달라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다. 그렇다면 타행 자동이체를 신청한 고객들은 그동안 하루 치 이자를 손해 보며 거래해왔다는 것인데, 그 사실을 왜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항의했지만 역시 미안하다는 대답뿐이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자동이체를 하지 않고 매달 내가 직접 송금할걸. 괜히 이자만 손해 봤잖아. 이런 건 자동이체 신청할 때 은행에서 미리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고객은 손해 보고 은행은 내 돈을 하루 갖고 있으면서 이자를 받고 있었다는 거네! 요즘 세상에도 이런 일을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니…. 은행들의 이런 횡포야말로 하루빨리 바뀌어야 하는 거 아냐?”



타 은행에 정기적금 등을 정기적으로 납부할 때 자동이체를 지정한 날짜로부터 하루 전에 인출되어 지정한 날짜에 송금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제안자는 자사 은행의 경우 당일 자동이체 처리되나 타 은행의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면서도 전일 인출되어 은행에서 보관한 후 다음 날 입금해주는 상황은 부당하니 바로잡아 줄 것을 국민행복제안센터에 건의하였다. 제안을 접수받은 금융위는 금융결제원, 은행 등 납부자 자동이체 관련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체 지정일에 출금과 입금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불합리한 도시가스 연체료 정산 방식, 확 바뀐다!

도시가스 요금을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치를 물어야 한다니
너무하네!





고지서를 받아보니 연체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기껏 해봤자 5일 정도 연체했을 뿐인데 높이 책정된
연체료가 이상했다. 결국 도시가스공사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놀라운 대답을 들었다.

“앗! 가만있어봐. 오늘이 며칠이지? 이런, 벌써 공과금 납부일이 지났잖아? 또 까먹고 있었네.”

달력을 본 영희씨는 한숨지었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이 또 지난 것이다.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아직도 매번 까먹고 연체를 반복하는 건지... 벌써부터 남편의 잔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했다. 영희씨도 매번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자신에게 실망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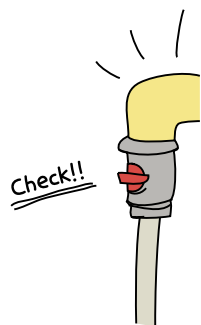
“어쩔 수 없지..., 정말로 이번까지만 연체하고 앞으로는 절대 납부 기한을 잊지 말아야지. 이번 달 연체 건은 남편에게 비밀로 해야겠다.”

고지서를 받아보니 연체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기껏 해봤자 5일 정도 연체했을 뿐인데 높이 책정된 연체료가 이상했다. 결국 도시가스회사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놀라운 대답을 들었다.

“고객님, 도시가스 요금의 연체료는 월할 계산으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5일 연체하셔도 한 달 치 연체료가 부과돼요.”

“어머, 그런 계산이 어디 있어요? 그럼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치를 물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세상에 그런 정산 방식이 어디 있나요? 그럼 연체료가 부당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정말 너무하네요.”





월할 계산이면 하루만 연체해도 연체료는 한 달 치로 계산되는 것. 사실 연체료가 그리 큰 액수는 아니지만 자신이 연체한 만큼만 부담하면 되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정산 방식 때문에 더 많은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다니. 그건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연체료 납부 체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정말 억울한 노릇이었다. 월할 계산이면 하루만 연체해도 연체료는 한 달 치로 계산되는 것. 사실 연체료가 그리 큰 액수는 아니지만 자신이 연체한 만큼만 부담하면 되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정산 방식 때문에 더 많은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다니. 그건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보, 도시가스 요금 연체료가 월할 계산인 거 알았어요? 나는 며칠 연체했는데 연체료를 한 달 치 부과한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된다고 따졌더니 이미 정해진 정책이라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해요?”

“그래? 아직도 연체료를 월할 계산으로 정산하는 경우도 있나? 예전에 다 바뀐 줄 알았는데…。 내가 한번 알아볼게. 아직도 불합리한 정책이 남아 있으면 바뀌어야지. 국민행복제안센터에 개선해달라고 건의라도 해야겠네. 그런데 당신, 아직도 도시가스 요금 연체하고 있어? 당신의 그 불합리한 습관도 좀 고쳐봐. 으이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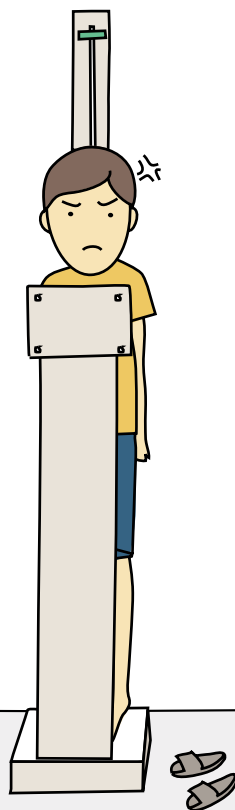


2005년 이전에는 도시가스 요금을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연체료(월 2퍼센트)가 부과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07년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개정하고 연체료 계산 방식을 일할 계산으로 전환해 전국 시도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2014년 1월, 연체료 일할 계산을 월할 계산으로 전환했다. 그러자 서울시와 경기도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일부 지역 도시가스 업체가 연체료를 산정할 때 미납요금에 부가세를 포함해 상대적으로 연체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을 건의하는 내용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의 제안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협조 회의를 개최하는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재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3월, 경기도는 4월부터 일할 계산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연체료를 산정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미납요금에만 연체료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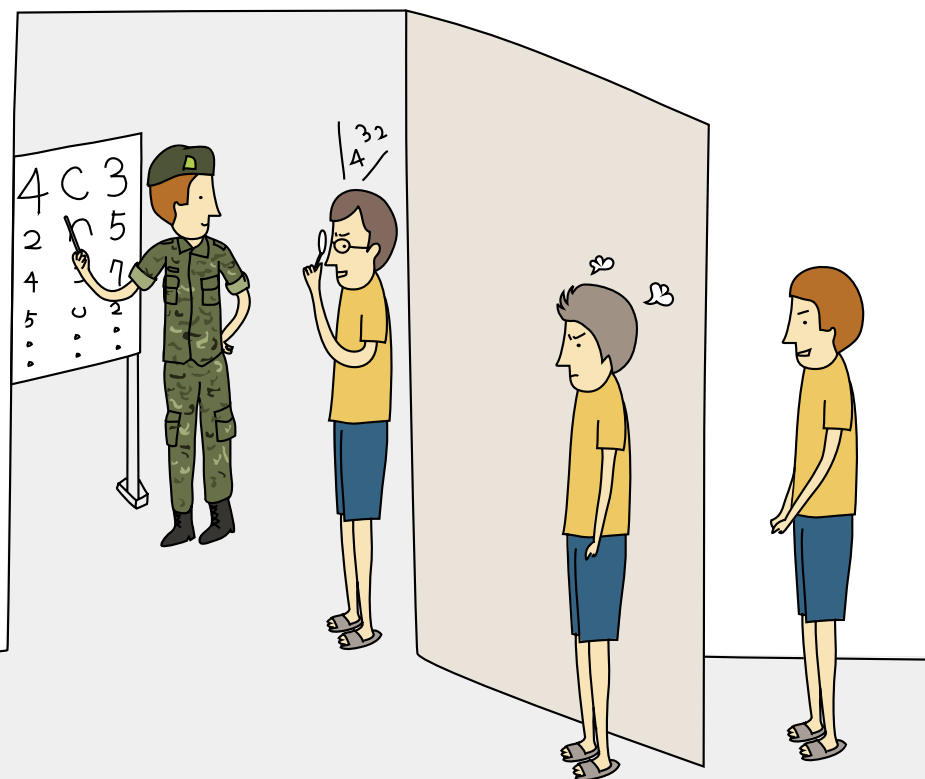
불편했던 징병검사 본인 인증, 더 쉽고 빠르게!

왜 징병검사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밖에 안 되는 거지?
이게 더 복잡하네!



새내기 대학생 종혁씨와 친구들 사이에서 요즘 ‘징병검사’가 화제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만 19세가 되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관문이기에 검사를 앞두고 궁금한 점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종혁씨는 이미 검사를 마친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며 왠지 곧 입대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에 사로잡혀 마음이 싱숭생숭해졌다. 사실 그도 올해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오늘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용호야, 너 징병검사 받았지? 뭐 특별한 거 있어?”





“난 인터넷 뱅킹을 안 하는데…. 비밀번호도 길고 어렵고, 보안카드도 보관하려면 신경 쓰이잖아. 좀 불편하긴 하지. 다른 애들도 공인인증서 때문에 귀찮다고 난리더라.”

“아니, 뭐 특별히 신경 쓸 건 없어. 인터넷으로 네가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선택한 뒤 직접 가서 신체검사만 받으면 돼. 끝나면 교통비도 주더라.”

“아, 그래?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구나. 그거 괜찮네.”

“응, 나도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 수업 별로 없는 날 다녀오면 따로 시간 낼 일도 없고 좋아.”

집으로 돌아온 종혁씨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하지만 징병검사에 대한 안내문을 읽고 검사를 신청하려다 난관에 부딪혔다. 본인 인증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종혁씨는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본 적이 없었다. 아직까지 인터넷으로 금융 거래를 할 일이 특별히 없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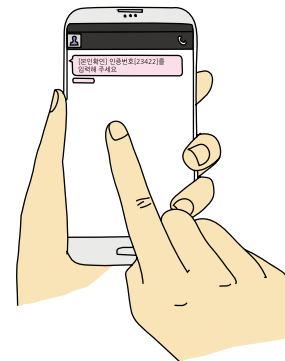
“헉…. 본인 인증을 공인인증서로밖에 할 수 없다니…. 이거 너무 하잖아! 다른 사이트는 휴대전화나 아이핀으로도 할 수 있던데 왜 징병검사는 공인인증서밖에 안 되는 거지?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편리하다고 좋아했는데, 이게 더 복잡하네!”

결국 본인 인증을 하지 못해 징병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종혁씨. 다음 날 학교에서 친구 용호씨와 밥을 먹으며 다시 물어보았다.

“용호야, 너도 징병검사 신청할 때 공인인증서 발급 받았냐? 난 그런 것도 몰랐어.”

“응, 나도 징병검사 신청하려고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았잖아. 앞으로 별로 쓸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말이야. 난 인터넷 뱅킹도 안 하는데…. 비밀번호도 길고 어렵고, 보안카드도 보관하려면 신경 쓰이잖아. 좀 불편하긴 하지. 다른 애들도 공인인증서 때문에 귀찮다고 난리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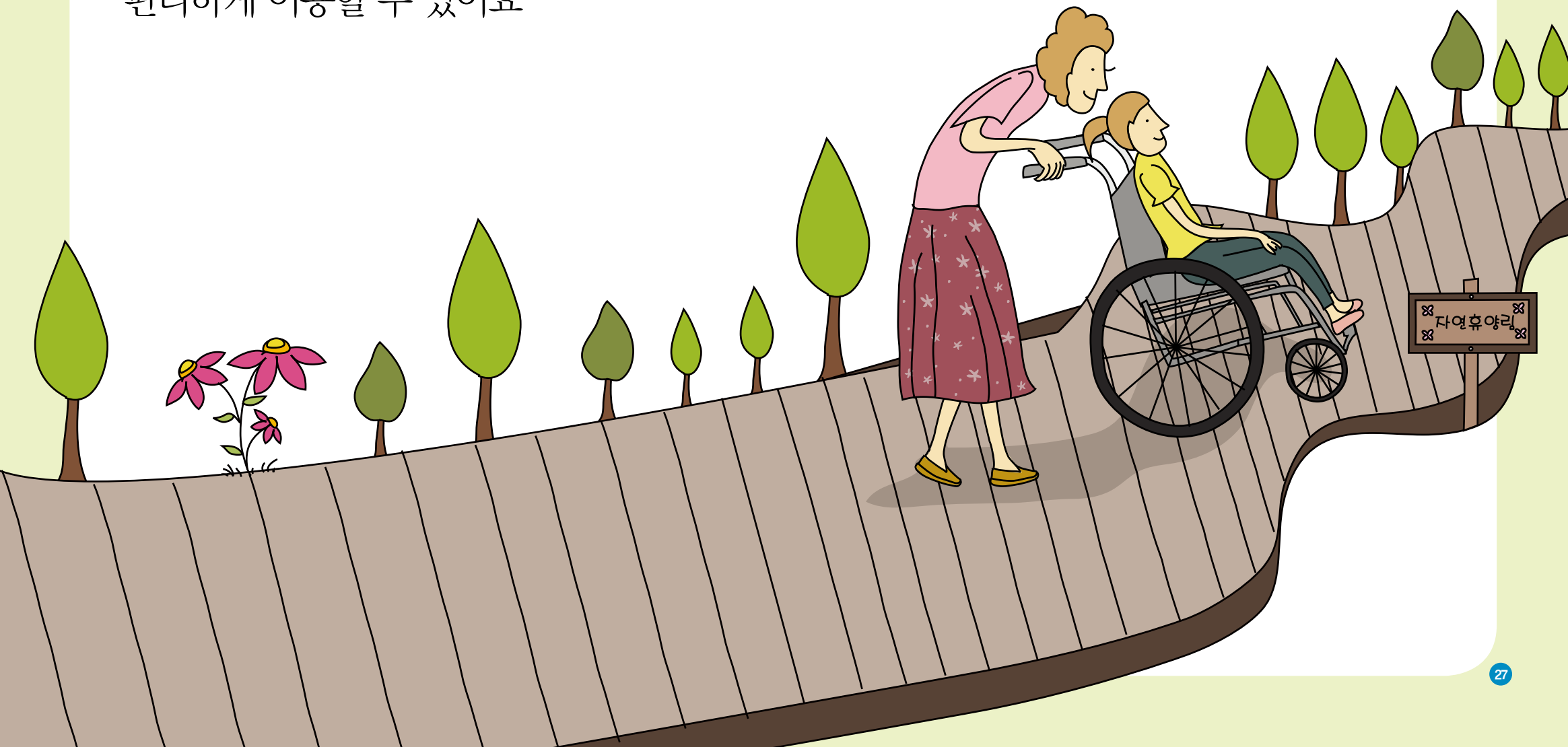
“나도 공인인증서가 딱히 필요 없는데 징병검사 땀에 발급 받게 생겼어. 다른 방법으로도 분명히 가능할 텐데.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해봐야겠어. 다른 방법도 가능하게 해줄 수도 있잖아. 그럼 후배들이 나한테 엄청 고마워하겠지?”



병무청에서는 징병검사 대상자가 징병검사 일자·장소를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한 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여부 확인 절차가 필요했다. 하지만 징병검사 대상자는 대부분 공인인증서를 소유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19세). 그들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편리한 징병검사 일자 신청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오히려 어렵고 복잡한 절차라는 건의가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접수되었다. 이에 병무청은 국민의 제안을 받아들여 징병검사 일자·장소의 인터넷 신청 시 공공 아이핀 및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였다.

장애인도 휴양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제 장애인도
휴가 다니기
편해졌네요!





“요즘 국립자연휴양림은 장애인도 이용하기가 편리하대요. 휠체어로 산책하기 편하게 데크도 만들어놓고 장애인용 객실이 따로 있다고 하네요. 괜찮죠?”

매년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 다연씨는 고민에 빠진다. 지체장애 2급인 초등학생 딸아이를 데리고 휴가를 다녀올 만한 곳이 딱히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 때문에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하는 아이가 갈 만한 여행지는 그리 많지 않다. 그렇다고 아이와 집에만 있을 수는 없어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거의 고생만 하고 휴가다운 휴가를 즐기지 못했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같은 복지 시설에서 만난 은수 엄마가 떠올라 수화기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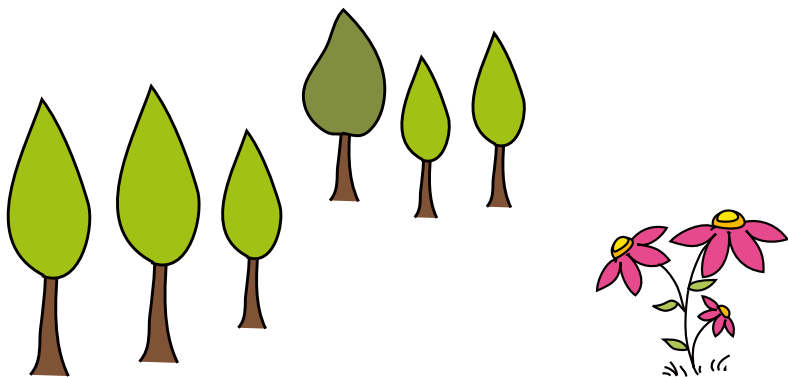
“은수 엄마, 올여름 휴가 계획 세웠어요? 우리는 어디로 갈지 아직도 못 정하겠어요.”

“어머, 아직도 안 정했어요? 숙소를 얼른 예약해야 할 텐데…. 우리는 휴양림 예약해놨어요. 요즘은 산책로도 잘 정비돼 있어서 산이라도 애들 데리고 갈 만하다고 하네요.”

“휴양림이에요? 정말 그동안 아이와 산에 갈 생각은 한 번도 하지 못했네요. 산책로가 잘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휠체어 타고 산책하기 좋은가보죠?”

“네, 나도 복지관에서 얘기 듣고 처음 가보는 거예요. 요즘 국립자연휴양림은 장애인도 이용하기가 편리하대요. 휠체어로 산책하기 편하게 데크도 만들어놓고, 장애인용 객실이 따로 있다고 하네요. 괜찮죠?”





“어머, 요즘 그렇게 시설이 좋아졌어요? 나만 모르고 있었나봐요. 그것도 모르고 작년에 괜히 고생만 하다 왔네. 다음부터는 그런 정보 알게 되면 우리도 알려줘요~! 우리도 빨리 알아봐야겠어요.”

다연씨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휴가를 어디로 갈까 고민하던 차에 정말 필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동안 여행지에서 고생만 했던 딸에게 이번엔 제대로 휴양림을 즐기게 해주고 싶었다. ‘나도 빨리 예약해야지’ 생각하는데 은수 엄마가 한마디 덧붙였다.

“아, 그리고 우리는 휠체어도 안 가져가려고요. 우리가 가는 휴양림에서는 휠체어도 빌릴 수 있다고 해서요. 집에서 얼마 멀지 않으니까 차로 이

동하고, 도착해서는 휠체어를 빌려서 다니면 돼요. 그러면 짐이 훨씬 줄어드니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이제 정말 장애인도 휴가 다니기 편해졌네요! 고마워요~. 이렇게 알짜 정보 알려줘서요. 우리 다음에는 휴가도 같이 다녀올래요? 은수 엄마는 정보가 많으니까 함께 다니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 하하.”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여가문화 확산으로 정신적·신체적 치유 효과가 좋은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행복제안센터에는 비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들도 함께 자연을 즐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휠체어 비치 등 편의 시설을 마련해달라는 국민행복제안이 접수되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교통약자들도 산림 휴양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정비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3개 자연휴양림(유명산, 운문산, 방장산)에 야외 체험로 및 장애인 객실을 운영토록 하였으며, 국민의 제안을 수용해 해당 자연휴양림에 교통약자용 휠체어를 비치하고 기반 시설을 조성한 후 점차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법인 휴대전화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어요!

“아휴~ 본인 인증이 이렇게 귀찮고 힘들어서야... 차라리 그냥 내 명의
로 휴대폰 하나 더 개통해버릴까?”

김 과장은 오늘도 휴대폰을 들고 투덜투덜 혼잣말을 늘어놓았다. 그리
고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꺼내 컴퓨터에 꽂았다. 마우스를 이리
저리 굴리며 그는 한숨을 쉬었다.

“휴대폰만 내 명의였어도 본인 인증은 1분이면 됐을 텐데, 이게 뭐야!”
영업사원인 김 과장이 사용하는 휴대폰은 회사에서 지급한 법인 명의
휴대폰이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휴대폰을 받고 통화요금을 지원받아 좋
았는데 법인 명의로 사용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
히 요즘처럼 휴대폰으로 간편히 본인 인증이 되는 시대에 휴대폰이 자신
의 명의를 아니다 보니 더 불편해졌다.





“그런데 법인 휴대폰은 왜 사용자가 회사밖에 안 되는 걸까요? 사용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의 정보가 입력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우리처럼 법인 휴대폰을 쓰는 사람들은 다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송 대리는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안 되니까 귀찮지 않아? 난 귀찮아 죽겠어~”

“과장님, 저는 얼마 전에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했어요. 귀찮아도 그게 더 나아요. 진짜 필요할 때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안 되면 얼마나 짜증나는데요. 법인 휴대폰은 업무할 때만 쓰고요, 제 개인 휴대폰은 제일 싼 모델로 그냥 기본 기능만 되는 걸로 하나 더 마련해 스페어로 들고 다녀요.”

“그래? 안 그래도 나도 그럴까 생각했는데. 그런데 휴대폰을 하나 더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지 않아? 괜히 더 신경 쓰일 것 같기도 하고.... 흠~ 고민되네.”

“그건 그래요. 정신없을 때 업무인데 제 개인 휴대폰을 쓰기도 하고 문자 메시지 찾을 때도 어느 휴대폰에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그거 뒤지다가 시간을 더 잡아먹고요. 그런데 법인 휴대폰은 왜 사용자가 회사밖에

안 되는 걸까요? 사용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의 정보가 입력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우리처럼 법인 휴대폰을 쓰는 사람들은 다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송 대리와의 대화를 하다가 김 과장은 속이 더 답답해졌다. 개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아닌 것 같았다. 괜히 휴대폰 두 개 들고 다녔다가 머리만 더 복잡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우선은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고 생활하기로 했지만, 김 과장은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지 의아했다.



국 민 이 행 복 한 번 화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본인임을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는 휴대폰 인증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따로 법인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급하게 인증이 필요할 때 곤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한다.

법인 휴대폰으로는 실제 이용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휴대폰 인증 서비스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 휴대폰 이용자는 본인 인증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인 휴대폰을 별도로 개통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했다.

제안인은 법인 휴대폰도 실제 사용자가 있는 만큼 이 정보를 등록하여 휴대폰 인증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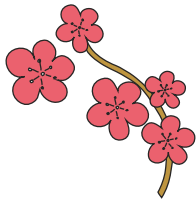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3개의 이동통신사들과 협의를 거쳐 2015년 4월부터 법인 소유 휴대폰에 대해서도 본인 인증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법인 휴대폰은 특성상 이용자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이 직접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해야 하며, 이통사는 서비스 이용 신청의 진위를 해당 법인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이용자 변경에 따른 대응 방안을 위해 이통사별로 본인 인증 절차의 안전성 확보 조치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지하철 승강장에도 교통약자 배려석이 생겼어요!

퇴근 시간 인파로 가득 찬 지하철 승강장. 은경씨는 더위를 식히며 서 있었다. 승강장의 벤치는 이미 만석.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생각하며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다. 한눈에 봐도 만삭인 임신부였다. 하지만 벤치에서 일어나 자리를 양보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교통약자들이 주변 사람들이 양보해줄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을 텐데... 차라리 승강장에도 노약자 배려석을 따로 만드는게 낫지 않을까?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닐 것 같은데 말이야.”

“정말 사람들 무심하네. 다들 스마트폰 보고 있느라 앞에 임신부가 서 있는지도 모르고 있잖아? 내가 가서 말해줄 수도 없고... 으이구~”

은경씨는 2년 전 둘째를 임신했을 때가 생각났다.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길은 정말 고역이었다. 사람들 땀 냄새에 숨도 못 쉬겠고 속도 울렁울렁. 한번은 너무 어지러워 승강장에 주저앉은 적도 있다. 하지만 승강장은 물론 지하철 안에서도 서 있는 은경씨를 위해 자리를 비켜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스마트폰에 집중하느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배가 불룩 나온 임신부임을 알아보지 못했다. 가끔 가뭄에 콩 나듯 자리를 양보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의 배려가 정말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다.

예전에 고생한 경험 때문인지 땀을 흘리며 서 있는 임신부가 괜히 더 안 쓰러웠다. 은경씨가 앉아 있었다면 바로 자리를 양보해주었을 텐데, 사실 임신부뿐만 아니라 연로한 어르신들에게도 요즘은 양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나마 지하철 안에는 교통약자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눈치 안 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승강장에는 그들을 위한 배려석이 없어 이용하기 불편한 건 사실이다.

은경씨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그때 바로 임신부 앞에 앉아 있던 한 청년이 자리를 양보했다. 미안해하면서도 자리에 앉아 한숨 돌리는 임신부를 보며 은경씨는 마치 자신이 자리에 앉은 듯 기분이 좋았다. “그래, 아직까지는 인심이 사라지진 않았어. 옆에서 봐도 기분이 좋은데 당사자는 얼마나 고마울까? 하지만 교통약자들이 주변 사람들이 양보해줄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을 텐데... 차라리 승강장에도 교통약자 배려석을 따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닐 것 같은데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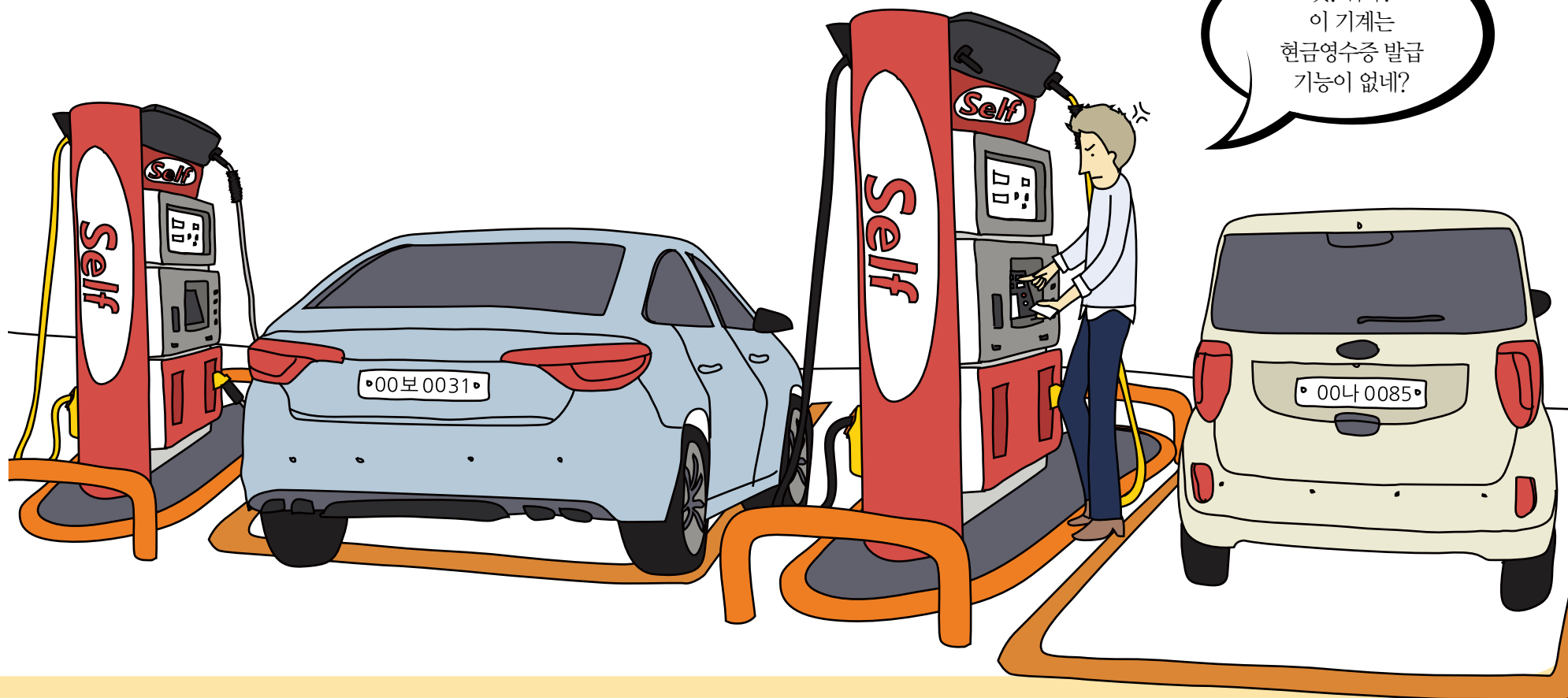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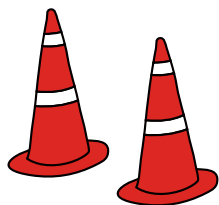
지하철을 타면 임신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들을 위한 교통약자석이 마련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배려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제안인은 지하철 내부뿐 아니라 승차를 기다리는 승강장에도 이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국민행복재단센터에 이를 제안했다. 대전광역시도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하고 해당 제안을 채택하여 대전도시철도 22개 역사 내 벤치 44개소에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석을 마련했다.

셀프주유소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요?

“앗! 뭐야? 이 기계는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이 없네?”

셀프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려던 병욱씨는 잠시 멈춰 서서 기계를 이리저리 작동시켜 봐야 했다. 병욱씨의 단골 주유소는 현금으로 주유할 경우 주유 기계에서 바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는데, 처음 찾은 이 셀프주유소는 현금영수증 기능을 찾을 수 없었다.





셀프주유소의 특성상 주유하는 곳에는 직원이 없어
하는 수 없이 병욱씨는 주유를 취소하고
차를 옆으로 빼 주차했다. 그리고 주유소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거 참, 이상하네? 현금으로 주유하는 사람은 영수증을 어떻게 받으라는 거지?”

셀프주유소의 특성상 주유하는 곳에는 직원이 없어 하는 수 없이 병욱씨는 주유를 취소하고 차를 옆으로 빼 주차했다. 그리고 주유소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손님, 죄송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주유하시고 사무실에 들어서 발급 받으셔야 해요. 기계가 고장 나서 지금은 주유 기계에서 발급되지 않거든요.”

“그럼 주유하고 나서 또 차를 옆에다 주차하고 다시 사무실로 와야 하는 건가요? 너무 불편하네요.”

“네, 기계가 고장 나서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병욱씨는 투덜투덜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걸고 주유 기계 앞에 정차했다. 현금을 기계에 넣고 주유한 후, 차를 다시 옆으로 빼 주차하고 사무실로 갔다. 정말 복잡하고 귀찮았다. 고장 난 기계를 제때 수리하지 않은 주유

소의 행태에 화도 났다.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현금영수증이고 뭐고 발급 받기 싫을 것 같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주유소 사무실 옆에 주차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나왔다.

그런데 황당한 일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몇 달 후 다시 찾은 이 셀프주유소는 그때까지도 기계가 고장 났다며 현금영수증을 사무실에서 발급해주었다. 몇 달 동안 기계를 수리하지 않은 주유소의 영업 행태가 괴심했





요즘 몇몇 셀프주유소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고 있는 게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병욱씨의 용감한 행동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

지만 병욱씨는 어쩔 수 없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주유소에 오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했다. 그런데 얼마 후 그의 단골 주유소 사장님과 대화하던 중 더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요즘 셀프주유소들이 일부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탈세하기 쉽거든요. 그래도 그 주유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시 조금은 양심적이네요. 아예 발급하지 않는 곳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현금영수증을 일부러 발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는 사실에 병욱씨는 놀라고 화도 났다. 그는 다행히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지만, 만약 발급받지 않았으면 비양심적인 주유소의 탈세를 도와주는 셈이 되는

것이였다. 이미 두 번이나 불편함을 감수하고 주유한 병욱씨는 다시는 그런 불쾌한 불편함을 겪고 싶지 않았다.

매번 단골 주유소에만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병욱씨는 스스로 나서서 이 불편함을 바로잡기로 했다. 병욱씨가 생각해낸 것은 바로 국민행복제안 센터에 건의하는 것. 자신이 겪은 불편함을 설명하고 요즘 몇몇 셀프주유소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고 있는 게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병욱씨의 용감한 행동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



국 민 이 행 복 한 변 화



연말정산 시 세금 절약을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생활화하라는 조언이 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에 비해 소득공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알뜰한 소비자라면 현금영수증을 잊지 않고 발급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인데, 현금영수증 제도가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며 이제는 현금을 사용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놓여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손해 본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셀프주유소에서 현금을 사용하여 주유한 경우, 주유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찾을 수도 없고 관리하는 직원도 보이지 않아 난감해하다 그만 발급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제안인은 대다수의 셀프주유소가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을 삭제하는 등 이러한 상황을 고의적으로 조장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국세청은 한국주유소협회의 협조를 얻어 주유기 현황을 파악하고 주유소협회 및 셀프주유기 생산업체에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을 탑재하도록 안내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실태 파악을 통해 셀프주유소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적극 유도할 것임을 약속했다.

육군훈련소에서 가족들이 실망한 이유

“여보, 어디예요? 나는 벌써 도착했는데!”

육군훈련소 입영장. 아들의 입영식 장면을 지켜보는 어머니 경민씨는 아까부터 남편을 찾지 못해 계속 두리번두리번 눈이 빠질 지경이다. 회사에서 오느라 따로 출발한 남편과 입영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서로를 못 찾고 있는 것이다. 휴대전화로 서로 위치를 알려주었지만 찾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지금 기둥 옆에 있는데, 입구 왼쪽에 있는 기둥 말야.”

“나도 입구 왼쪽에 있는 기둥 옆에 서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입구를 말하는 거예요? 출입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이러다가 입영식 끝나겠어요. 우선 당신도 입영식부터 보고 천천히 만나요.”

“아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럼 내가 입영식 보면서 당신도 찾아볼게.”





“여보, 저 녀석들 좀 봐. 나도 입대할 때 저렇게 천방지축이었겠지? 그래도 부모들이 아들의 훈련소 수료식에 와서 기대하는 건 넘름한 모습인데... 이런 건 미리 연습을 제대로 해서 더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 경민씨는 남편과 따로 입영식을 봐야 했다. 너무 많은 인파 속에서 남편을 찾으려다가 정작 입영하는 아들 얼굴을 못 보게 생겼기 때문이다. 주변을 둘러보니 경민씨처럼 가족을 못 만나서 해매는 사람이 많아 보였다.

육군훈련소에서 병사들의 가족이 겪는 불편함은 이뿐만이 아니다. 신병 수료식이 열리는 행사장도 가족과 친지들이 한꺼번에 몰려 혼잡을 빚는다. 아들의 신병 수료식에 참석한 진덕씨도 미흡한 행사 진행 때문에 살짝 실망감을 느꼈다.

“여보, 행사가 10시 30분에 시작된다고 하지 않았나? 시간이 지났는데 왜 지금 예행연습을 하고 있는 거지? 거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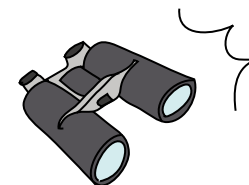
“그러게요. 우리가 괜히 일찍 왔나 봐요. 좀 천천히 올걸. 휴게소에서 화장실도 들르고요. 여기 화장실은 사람도 많고 너무 더럽네요. 이용자가 워낙 많아서 관리가 잘 안 되나 봐요.”

11시가 되어서야 드디어 시작된 수료식. 이미 예행연습을 본 진덕씨에게는 본 행사가 그리 새롭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웃고 떠드는 사병들이

줄도 제대로 못 맞추고 서 있는 모습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었다.

“여보, 저 녀석들 좀 봐. 나도 입대할 때 저렇게 천방지축이었겠지? 하. 그래도 부모들이 아들의 훈련소 수료식에 와서 기대하는 건 넘름한 모습인데... 이런 건 미리 연습을 제대로 해서 더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군기가 빠졌네요. 그래도 뭐 다들 건강하고 즐거워 보여서 보기는 좋네요. 그래도 음악 같은 건 군악대라도 와서 연주해주면 행사가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수료식인데 큰 볼거리는 없네요.”



아들의 입영을 배웅하기 위해 육군훈련소에 방문한 한 제ан인은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는 바람에 일행을 찾지 못해 곤욕을 치렀다.

신병 수료식에 참석하러 육군훈련소에 방문한 또 다른 제ан인도 신병 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씩씩하게 변모한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대견스러우면서도 수료 행사 시간이 연기되는 등 일부 미흡한 행사 모습에 실망스러운 인상을 받았다.

국민행복제ан센터에 이와 같은 사연이 접수되었고 국방부는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신병 수료식 행사를 개선해 신병 수료식 행사를 미리 고지한 정시에 실시함은 물론, 화장실 등 시설의 청결 상태를 개선해 면회객의 불편을 줄였다.

또한 군악대를 훈련소 영내 및 입영심사대에 지원하여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과 새로이 군 생활을 시작하는 신병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반적인 수료식 행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개선했다.

쾌적한 피서를 위해 만든 '해수욕장법' 알고 있나요?

잡상인이 너무 많고
지저분해서 또 가기 싫은
곳이었어요. 씻는 곳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도대체 해수욕장은 누가 관리하는 걸까요?
잡상인이 너무 많고 지저분해서 또 가기 싫은
곳이었어요. 씻는 곳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다른 데도 다 이런 건가? 당신은
괜찮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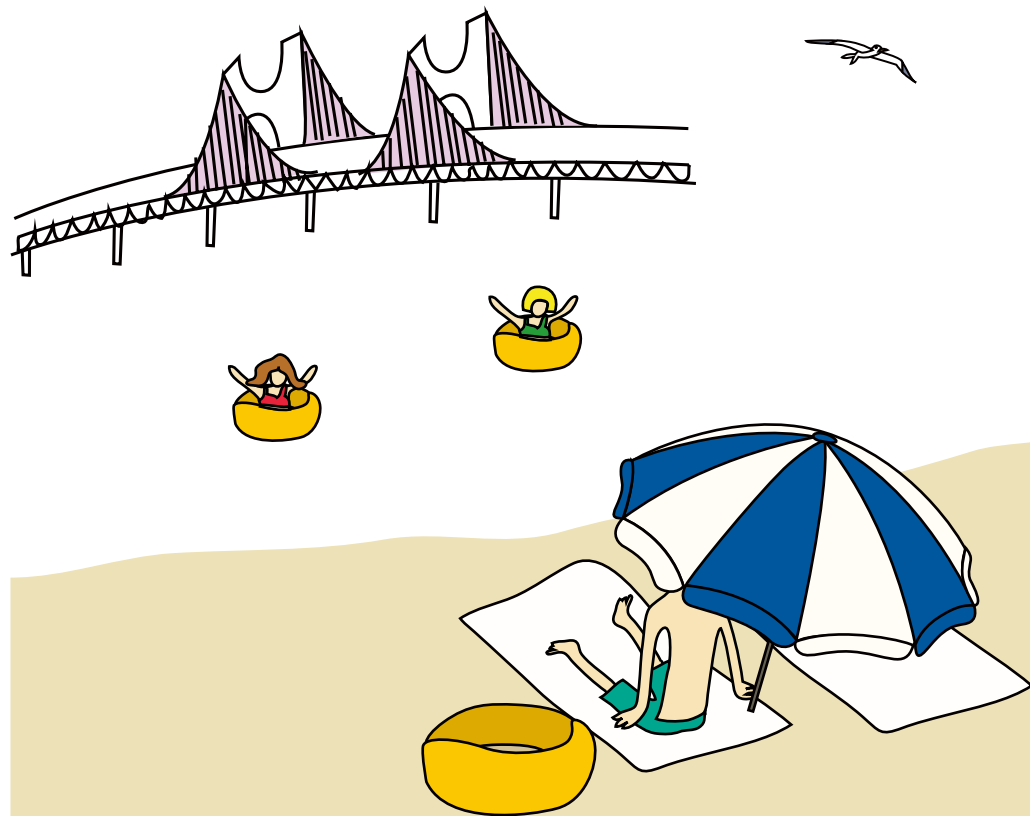
“여보, 우리 다음부터는 여름휴가로 해수욕장은 안 가는 게 좋겠어요.
사람이 너무 많은 데다가 이용료도 너무 비싸고 가서 제대로 놀지도 못
하고 바가지만 쓰고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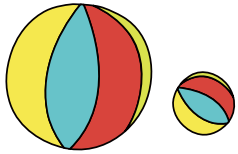
영수씨는 여름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말했다. 이번 피서는 정
말 별로였다고. 해수욕장이 언제부터 상술에 휘말렸는지 자리값은 물론
이거니와 뭐 하나 빌리고 사 먹으려고 하면 다 비싼 값을 지불해야 했다.
비싸더라도 쾌적하게 즐기고 올 수 있다면야 그러려니 했겠지만, 돈은
돈대로 들고 어지럽고 지저분한 해수욕장 분위기에 제대로 즐길 수조차
없었다.

“도대체 해수욕장은 누가 관리하는 걸까요? 잡상인이 너무 많고 지저분
해서 또 가기 싫은 곳이었어요. 씻는 곳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다른 데도 다 이런 건가? 당신은 괜찮았어요?”

남편 경훈씨도 피서를 다녀와서 피로가 더 쌓인 기분이었다. 기분 좋게
출발한 여행이었지만 여행지의 바가지 물가는 부부의 기분을 언짢게 만
들었다. 두 아이까지 포함해 네 식구가 쓰고 온 돈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아무튼 해수욕장을 가더라도 정비가 더 잘된 곳을 가야지 이번에 갔던 곳은 다시는 가기 싫어요. 유명한 해수욕장이 그렇게 관리가 형편없을 줄이야. 나는 또 가기 싫으니까 다른 데 알아보자고요.”

만큼이었다. 애들은 바닷가라고 마냥 좋아했지만 부모는 물 한 병 사 마시는 것까지 신경이 쓰였으니 전혀 휴가답지 못한 휴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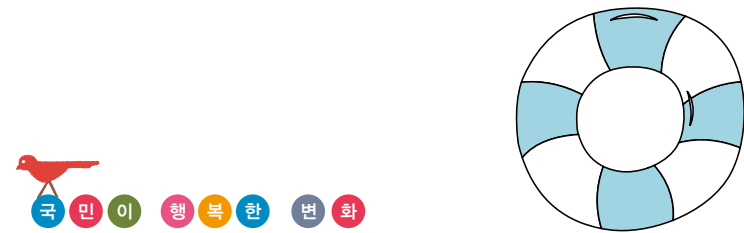
“그러게 말이야. 내가 보기에 관리가 엉망이더라고. 게다가 수영하는 곳에 수상스포츠 기구가 왔다 갔다 하니 얼마나 위험해. 애들이 수영하다가 다칠까봐 신경 쓰이더라고. 그래도 애들이 너무 좋아해 앞으로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해수욕장을 가더라도 정비가 더 잘된 곳을 가야지 이번에 갔던 곳은 다시는 가기 싫어요. 유명한 해수욕장이 그렇게 관리가 형편없을 줄이야. 나는 또 가기 싫으니까 다른 데 알아보자고요.”

사실 경훈씨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렇게 터무니없이 비싸고 피곤한 여행은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니 안 갈 수는 없었다. 애들은 내년에 또 가자고 벌써부터 난리였다. 경훈씨는 컴퓨터를 켜고 아이들을 위해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접속해 제안을 올렸다.

이번에 경험한 일들과 개선해야 할 점을 상세히 적은 경훈씨는 자신의 건의사항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기다려보기로 했다.

“여보, 내가 어제 밤에 해수욕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인터넷에 제안을 올렸어. 국민이 국가에 건의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 우리만 느낀 불편함이 아니었으니까 아마도 곧 개선될 거야. 내년에 한 번 더 가서 어떻게 변했는지 보자고.”



뾰족 찌는 여름, 꿀맛 같은 휴가를 얻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휴가지는 푸른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일 것이다. 그러나 휴가철 특수를 노리는 일부 악덕 상인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물면서 기분 상할 때도 있고, 편의 시설이 부족해 여기저기 헤맬 때도 있다. 때로는 주변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이용객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등 일상의 고단함에서 벗어나고자 간 해수욕장에서 오히려 피로만 쌓여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그동안 이러한 휴가철 불만을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해도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손쓸 수가 없다는 답변에 허탈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개선해 국민 누구나 쾌적하고 인력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행복제안이 접수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2014년 12월부터 시행하였다. 올해부터는 해수욕장에서 불법으로 물건을 팔거나 바가지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해당 업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불법 업자뿐 아니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하거나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주변 휴양객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기관만 이용하던 '나라장터', 민간에 개방되다

한 소형 출판사의 총무팀에서 근무하는 김 대리. 그는 구매 담당이다. 책을 제작하는 용지, 문구류, 사무용품, 직원용 책상에서부터 컴퓨터까지 회사에서 구매하는 모든 것이 그의 손을 거쳐 회사에 들어오게 된다.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 원까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의 임무는 꽤나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나라장터’ 같이 전자입찰이 가능한 사이트는 민간 기업이 이용할 수 없나요? 어차피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이니 민간 기업도 입찰할 수 있다면 서로 좋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차장님, 이번에 구입해야 하는 인쇄 기계들 있잖아요. 제가 알아보니 업체도 너무 많고 비용도 제각각 달라서 공개 입찰을 통해 구입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개 입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오프라인밖에 안 되죠? 온라인으로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더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을 텐데...”

“그러게, 기계가 백만 원 이백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수천만 원씩 할 텐데 좀 더 믿을 만한 업체에서 살 수 있으면 좋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잖아. 오프라인으로라도 입찰을 진행해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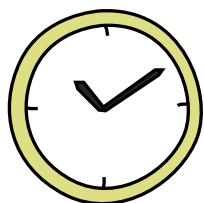
“공공기관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나라장터’ 같이 전자입찰이 가능한 사이트는 민간 기업이 이용할 수 없나요? 어차피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이니 민간 기업도 입찰할 수 있다면 서로 좋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나도 예전에 한번 알아봤는데 나라장터는 공공기관만 입찰 공고를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포기했어. 그러니 어쩔 수 있나, 아쉬운 대로 오프라인으로 입찰 공고 내고 진행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김 대리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오프라인으로 입찰 공고를 내면 그 날부터 야근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밀려오는 서류들을 검토하는 데만 꼬박 며칠이 걸리고, 그걸 일일이 비교 분석해 결론을 내는 것까지 모두





김 대리가 도맡아 해야 하는 일이었다. 이번에도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혼자 감당해야 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면 매번 괴로울 것 같았다.

“민간 기업에서도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조달청에 한번 건의해볼까?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이니까 민간 기업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야.”

그날 밤, 김 대리는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문을 올렸다. 건의 사항이 반영될지 확신은 없지만 이렇게라도 노력을 해봐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이미 아파트 관리사무소, 영농·어조합, 비영리 민간단체는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이 가능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김 대리는 성의를 다해서 제안문을 작성했다.

얼마 후, 김 대리는 국민행복제안센터로부터 반가운 메일 한 통을 받았다.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한 구절!

“우리 청에서는 2015년 1월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민간 개방 서비스를 위해 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야호~!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이제 우리 회사도 훨씬 편하게 입찰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잖아! 차장님, 이 메일 좀 보세요. 제가 드디어 한 건 했습니다. 중소기업도 이제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대요! 제 덕분에 우리 회사 돈 번 거 맞죠? 하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KONEPS)’은 2002년 시스템 구축 이후,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 조달 단일 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공공기관과 입찰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데 기여해왔다.

최근 투명한 사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공공 부문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대해 민간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제안이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접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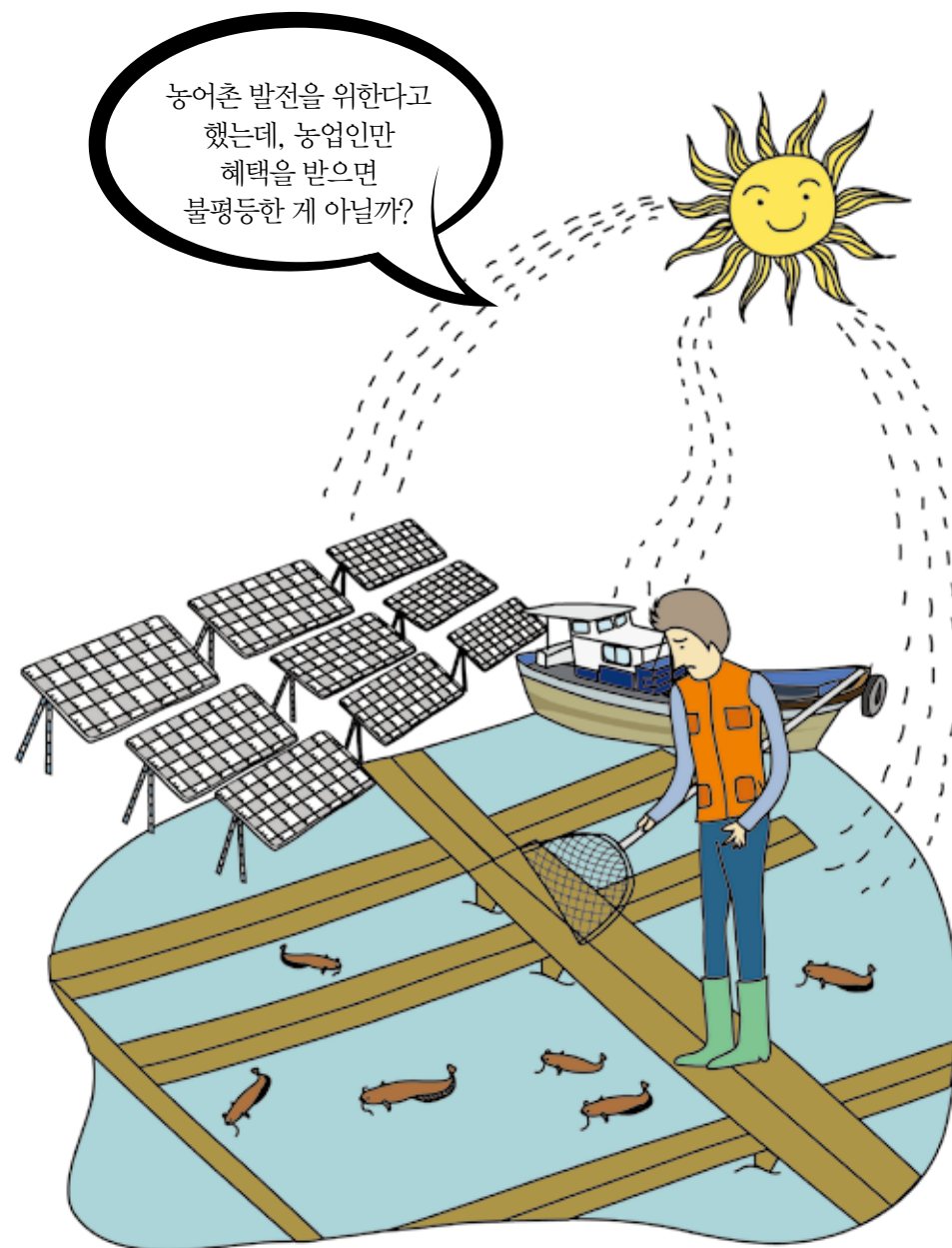
조달청은 개방·공유·소통의 정부3.0 핵심 가치에 맞추어 해당 제안을 채택하고, 민간 수요자를 위한 나라장터 시스템 확대를 추진하여 2015년 1월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영농·어조합, 비영리 단체 및 중소기업에서도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대금청구까지 이용 가능한 ‘누리장터’ 서비스를 오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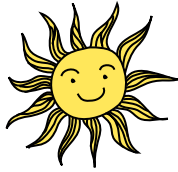
농업인, 어업인 구분 없이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와~ 올해는 메기 양식이 더 잘될 것 같구먼~. 이것 봐! 메기들이 알을 이렇게 많이 낳았네. 작년에 양식장하고 공장을 증축하길 잘했어. 우리 조합이 전국에서 메기 양식 성공률이 최고랍니다. 다들 고생 많았어요! 올해도 잘해봅시다.”

진철씨가 조합장을 맡고 있는 메기양식조합은 올해 ‘메기 풍년’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에 큰맘 먹고 양식장과 가공식품 공장을 현대식으로 수리하고 증설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 큰 비용이 들었지만 메기 생산량이 예전보다 배로 늘었으니 조합원들은 뿌듯할 수밖에. 하지만 이 모든 사업을 추진한 조합장 진철씨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메기 생산량이 성공적으로 늘고 있지만 지난해 공사 때문에 쓴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조합장님, 그 얘기 들었어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대요. 옆 마을 마늘조합은





벌써 설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설치하면 전기요금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우리도 태양에너지 발전기를 쓸 수 있다면 전기를 많이 아낄 수 있죠. 빨리 도청에 가서 신청해야겠네요.”

진철씨는 그길로 도청에 가서 전기 사업 허가 신청서를 냈다. ‘메기 양식도 잘되고 태양에너지 발전기를 설치해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올해는 조합원들의 지갑이 좀 두툼해지겠군. 내년에 대학 입학하는 우리 딸 등록금 부담도 좀 줄겠네!’라고 생각하며 진철씨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도청을 나왔다.

하지만 얼마 후, 도청에서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연락이 왔다. 관계법령상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뿐이라는 설명이었다. 진철씨가 운영하는 메기양식조합은 어업법인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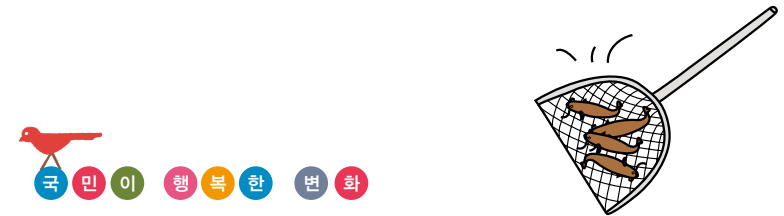
진철씨는 낙담했다. 농업인과 어업인이 서로 일하는 분야만 다르지, 사실 같은 공간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가. 억울한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 조합원들에게 뉘두리를 하던 중 한 조합원이 도청에서 설명해준 법령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자고 건의했다.

“이것 보세요. 농지법에서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농어촌’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니까 넓게 해석하면 우리 어업법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네. ‘농어촌’ 발전을 위한다고 했는데 농업인만 혜택을 준다는 것 자체가 불평등한 건 사실이지. 그런데 이미 도청에서 반려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지?”

“혹시 국민행복제안센터라고 들어보셨어요? 국민이 법령이나 제도 개선을 직접 제안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얼마 전에 도청에 갔다가 사례를 모아놓은 책자를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 그럼 우리 한번 건의해볼까? 우리나라 농어촌 발전을 위해! 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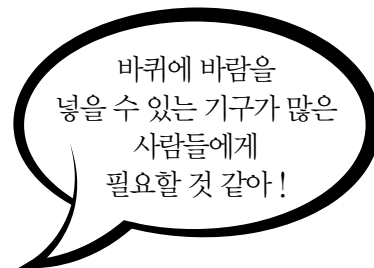
농림부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자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건축물 위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은 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님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내 내수면 양식장 등의 건축물 위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었다. 제안인은 농·어업 간 형평성을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제안을 제출하였고 농림부는 이 제안을 채택하여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가능자를 어업인 및 어업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농지법 시행령을 재개정했다.

자전거 출퇴근족을 위한 작은 배려



“이 대리, 뱃살 나왔다고 툴툴거리지 말고 나처럼 자전거 타고 출퇴근 해봐! 뱃살이 저절로 들어갈걸? 그리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 교통비도 훨씬 절약된다고~. 살도 빼고 돈도 아끼고, 이게 바로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지. 하하.”

요즘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재미에 푹 빠진 혜영씨. 자전거는 정말 매력적인 이동수단이다. 건강도 지키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으니 말이다. 게다가 요즘은 자전거 도로가 잘 마련되어 있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 자연을 벗 삼아 출퇴근할 수 있는 것도 큰 기쁨이고 보기 싫던 뱃살이 조금 들어간 건 보너스라고 할까? 그렇게 매일 아침저녁으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출퇴근하니 하루하루가 더 활기차게 느껴진다. 그러다 보니 혜영씨는 자연스럽게 동료들 사이에서 자전거 출퇴근 전도사가 되었다.





혜영씨는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주민센터 자전거 공기주입기 구비'를 건의하는 제안을 올렸다. 특히 혜영씨가 살고 있는 울산시는 최근 새로 생긴 자전거 도로가 많아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더욱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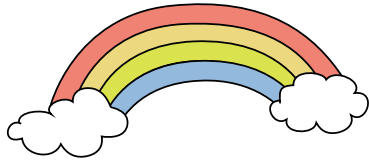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상쾌한 일상을 보내던 혜영씨에게 어느 날 난감한 일이 벌어졌다. 퇴근길에 자전거 바퀴에 구멍이 나서 바람이 빠지고 만 것이다. 그대로는 자전거를 탈 수 없어 혹시 주변에 자전거를 수리하는 곳이 있나 살펴봤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자전거를 두고 갈 수도 없고 참으로 난감했다. 그때 혜영씨의 눈에 띈 곳이 있었으니, 바로 인근의 주민센터였다.

“아, 맞아! 예전에 갔던 주민센터에는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있었지. 어찌면 저기도 있을지 몰라. 한번 가보자!”

혜영씨는 바람 빠진 자전거를 킁킁 끌며 주민센터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 주민센터에는 공기주입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요즘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고 운동하는 사람도 많은데 주민센터에 그런 서비스 기구가 없다는 게 조금 실망스러웠다.

게다가 자전거 도로는 새로 만들면서 자전거 정비 기구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결국 그는 바람 빠진 자전거를 끌고 땀을 뻘뻘 흘리며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집에 도착하니 평소 퇴근시간보다 한 시간이 늦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니 아내가 국민행복제안센터를 알려주었다.





“여보, 그러면 자전거 수리 기구를 마련해달라고 제안해보는 건 어때요? 당신처럼 자전거를 타다가 바퀴에 바람이 빠져 고생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아, 그런 곳이 있었어? 그럼 한번 제안해볼까? 다른 건 몰라도 바퀴에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기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할 것 같아. 공기 주입기는 별로 비싸지 않아 주민센터에서도 별로 부담되진 않겠지. 바퀴에 바람이 자주 빠지면 자전거로 출퇴근하기 힘들 것 같았는데, 건의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니 다행이네. 고마워! 한번 제안해볼게.”

바로 다음 날, 혜영씨는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주민센터 자전거 공기 주입기 구비’를 건의하는 제안을 올렸다. 특히 혜영씨가 살고 있는 울산시는 최근 새로 생긴 자전거 도로가 많아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더욱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 이유로 혜영씨는 시에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었다.

자전거 공기주입기 문제는 혜영씨가 생활하면서 실제로 경험했던 불편함이었기에 시에서도 그 고충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다. 역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혜영씨의 제안이 접수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울산시의 주민센터와 경로당 등에는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비치되었다. 혜영씨와 같은 자전거 출퇴근족은 물론, 평소 자전거를 타며 운동하는 시민들에게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바퀴에 바람이 빠질까봐 노심초사하는 일이 없어진 혜영씨는 오늘도 경쾌하게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한다. 덕분에 혜영씨의 뱃살도 조금은 더 들어가지 않았을까?



최근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자전거 타기가 각광받으며 정부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자전거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주행 중 바람이 빠지거나 펑크가 났을 때, 가까운 곳에서 자전거 수리점을 찾기 못해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시민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주민센터에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구비하자’는 내용의 제안이 제출되어 울산광역시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해당 제안을 채택하고 관내 주민센터 및 경로당에 자전거 공기주입기 등을 구비하였다.

온누리상품권, 여러 장 써도 환불은 똑같이!

주부 주미씨에게 깜짝 선물이 도착했다. 남편이 회사 워크숍 퀴즈대회에서 상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온 것이다.

“어머머머~! 이게 웬 횡재야? 한번 세어보자. 1만 원짜리 10장? 10만 원 어치네! 여보~ 잘 쓸게. 안 그래도 생활비 살짝 모자랐는데..., 옆에 전통 시장 있으니까 이거면 시장 두 번은 보겠다. 고마워!”

그리 큰돈은 아니지만 주미씨는 기분이 좋았다. 집 근처에 전통 시장이 있는 데다가 안 그래도 요즘 장볼 일도 많은데 10만원이면 꽤 쓸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전통





“온누리상품권은 액면가의 60% 이상 구매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쓰여 있긴 한데,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없잖아? 온누리 상품권도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상품권인데 왜 이렇게 설명이 불분명하지?”

시장에서 장보는 것도 몇 번이나 물건을 들었다 놔다 해야 했는데 10만원어치 상품권이라니! 상품권을 받아서 그대로 아내에게 갖다 준 남편이 괜히 더 고마웠다.

“오늘은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 남편 기 좀 팍팍 세워줘야겠다. 불고기를 해줄까? 갈비를 해줄까?”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장에 있는 대형 정육점으로 들어선 주미씨. 당당하게 불고기거리 두 근과 국거리 반 근을 주문했다. 총금액 4만3천원이라 남편에게 받은 온누리상품권 5장을 내밀었다. 그런데 종업원이 상품권 1장을 다시 돌려주며 말했다.

“손님, 상품권 4장하고 현금 3천원으로 주세요. 상품권은 이용하신 금액의 잔액이 60% 이상이어야 현금으로 잔돈을 드릴 수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상품권을 5만원어치 드렸으니까 이용 금액이 60%를 넘잖아요. 4만3천원인데...”

“1만 원짜리 5장이니까 그렇죠. 1만원의 60%인 6천 원 이상이 돼야 잔돈을 현금으로 드릴 수 있어요.”





“어머, 다른 상품권은 다 해주던데 왜 온누리상품권만 1만 원씩 따로 계산해요?”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요,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네요.”

막무가내인 정육점 종업원의 말에 주미씨는 상품권을 돌려받고 현금 3천 원을 건네면서 얼굴이 빨개졌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하는 생각으로 돌려받은 상품권의 뒷면에 있는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았다. 상품권 뒷면에는 환불 규정이 보이지 않았다.

“어? 정말 이상하네. 문화상품권이나 백화점 상품권은 뒷면에 환불 규정이 명시돼 있고, 여러 장을 동시에 써도 총금액이 액면가의 60% 이상이면 현금으로 잔돈을 거슬러 받았던 것 같은데…”

온누리상품권이 생겨 신나는 마음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정육점에 서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인 일이 창피했던 주미씨는 집으로 돌아와 컴퓨

터를 켰다. 그러고는 온누리상품권의 환불 규정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에휴~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모호하네. 온누리상품권은 액면가의 60% 이상 구매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쓰여 있긴 한데,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없잖아? 온누리상품권도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상품권인데 왜 이렇게 설명이 불분명하지? 도대체 상품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거야?”



전통 시장의 수요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가까운 장터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어 실용성이 높은 선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권면금액 종류에 관계없이 100분의 60 이상의 액수를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장 이상의 상품권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권면금액을 합산한 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장의 상품권에 대한 잔액 환불 규정이 상품권에 명기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와 상품권 가맹 시장 상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 개선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행복제안이 접수되었다.

중소기업청은 소비자와 시장 상인 간 환불 규정의 해석에 따른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여러 장의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때도 총 구매금액 중 합산한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해 주도록 안내하는 문구를 2015년 발행 상품권부터 명기하여 가맹 상인들이 잔액 환불 규정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현실로 ‘창의 발명 우주선 프로젝트’

우주여행은 모든 청소년이 한 번쯤 꿈꾸는 소원이 아닐까. 올해 중학교 2학년인 채원양 역시 우주과학에 관심이 많다. 얼마 전 TV에서 지구 성층권 촬영 영상을 보고 우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채원양도 지구 성층권을 촬영해보고 싶었지만 청소년이 개인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선생님, 과학 시간에 지구 성층권을 촬영할 수는 없나요? 정말 해보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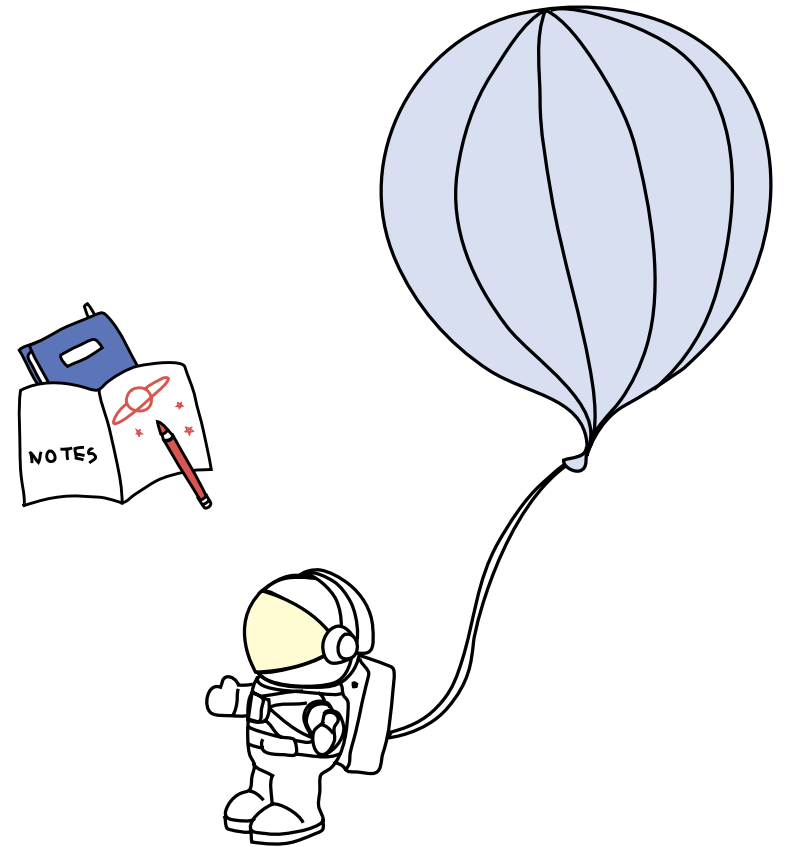
“채원아, 안타깝지만 우리 학교에는 지구 성층권을 촬영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선생님도 도와주고 싶은데 아쉽구나. 혹시 ‘국민행복제안센터’라는 사이트를 알고 있니? 채원이가 직접 청소년들이 지구 성층권을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해보는 건 어떨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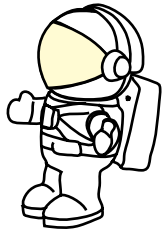
“채원아, 안타깝지만 우리 학교에는 지구 성층권을 촬영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선생님도 도와주고 싶은데 아쉽구나. 혹시 ‘국민행복제안센터’라는 사이트를 알고 있니? 채원이가 직접 청소년들이 지구 성층권을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해보는 건 어떨겠니?”

“와! 정말 그 사이트에 제안을 올리면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 바로 제안을 올려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채원양의 간절함은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로 탄생했다.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우주탐험가를 모집해 우주선을 제작하는 ‘창의 발명 우주선 프로젝트’가 가동된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제안한 채원양도 청소년 우주탐험가로 뽑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선생님! 저 지구 성층권을 촬영할 수 있게 됐어요. 제 제안이 받아들여져 우주선을 발명하는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됐거든요. 제 모습을 본떠 만든 아바타도 탑승시켜준대요. 선생님 덕분에 국민행복제안센터도 알게 되고 꿈도 이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와~ 우주선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구나. 막연히
우주를 보고 싶다고 상상했는데 국민행복제안센터
덕분에 이렇게 현실이 되었네! 앞으로 멋진 발명을
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웬지 그날이 벌써 온 것
같아 너무 기쁘다.”

“와~! 채원이 대단한걸? 선생님도 채원이 아바타가 우주선을 타는 그
날을 기대해볼게!”

채원과 함께 뽑힌 청소년 우주탐험가들은 프로젝트를 돕기 위해 모인
대학교 기술교육과 교수님과 대학생 언니, 오빠들의 도움을 받아 우주
선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기상풍선, 낙하산, 위치추적기, 영상 촬영 관
측장자로 이루어지는 이 우주선은 풍선의 형태로 제작되어 성층권을 촬
영하게 된다. 우주선을 만든 채원양은 벌써 과학자가 된 기분이었다.

“와~ 우주선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구나. 막연히 우주를 보고 싶다고
상상했는데 국민행복제안센터 덕분에 이렇게 현실이 되었네! 앞으로 멋
진 발명을 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웬지 그날이 벌써 온 것 같아 너무
기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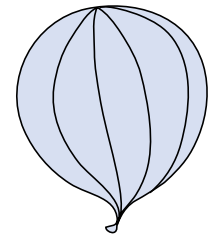
얼마 후, 꿈에 그리던 우주선 발사의 날이 다가왔다!

너무 설레어 전날 밤잠마저 설친 채원양은 일찌감치 발사 장소로 향했다.
채원양 인생에서 이렇게 멋진 경험이 또 있을까. 완성된 우주선은 채원
양의 아바타를 태우고 이제 발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청소년
우주탐험가들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시간이 왔다.

“3, 2, 1, 발사!”



국·민·이·행·복·한·변·화



어린 시절, 밤하늘을 바라보며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기분은 어떨까 하고 상상하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이 이러한 우주여행을 실현하기는 경제적·제도적
문제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이러한 꿈을 가진 어느 청소년의 제안이 접수되었다.

제안을 접수한 특허청은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우주까지 꿈과 상상력을 펼칠
기회를 마련해주자는 취지로,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풍선, 카메라, 낙하산 등을
사용해 성층권까지 올라가 우주를 여행하고 돌아오는 개발 프로젝트 ‘창의 발명 우주선’
사업을 추진했다. 창의 발명 우주선은 제작 단계에서부터 우주여행과 발명에 뜻을 둔
청소년들을 공개모집해 함께 제작하였으며, 전 국민을 상대로 우주선의 명칭 및 메시지를
공모하는 등 다양한 민·관 협력과 재능기부를 통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3D프린터로 제작된 2명의 청소년 우주탐험가의 아바타를 탑승시킨 우주선은 성층권
상공까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청소년의 꿈과 도전 정신,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낸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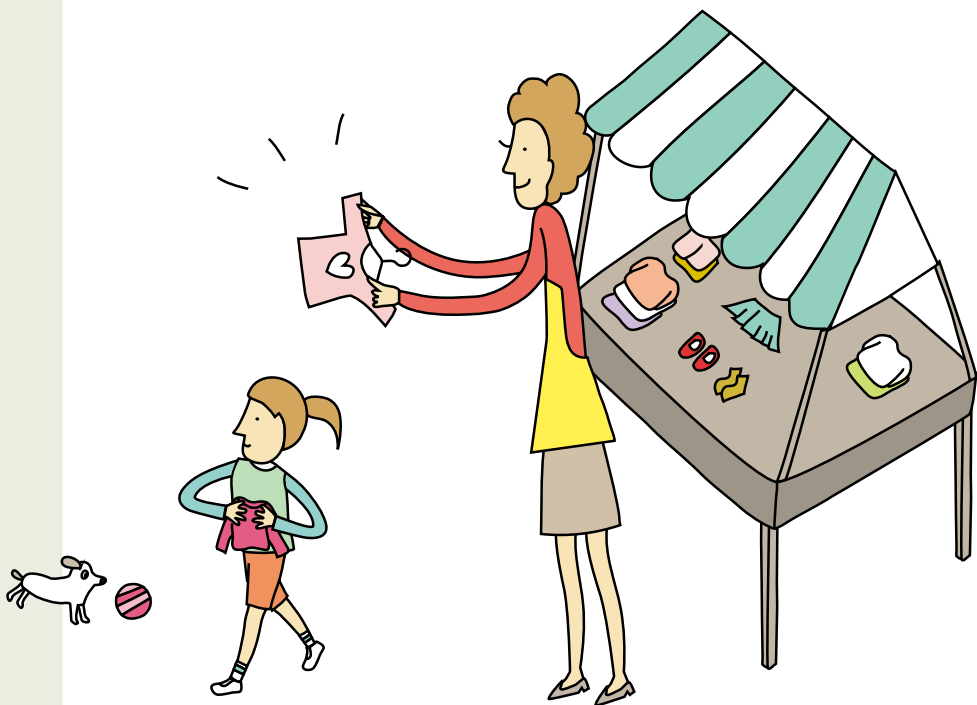
작아진 영·유아 옷 버리지 말고 교환합시다

엄마!
옷이 너무 빨리 작아져요!
새 옷 사주세요~



“주연 엄마는 주연이 옷 어디서 사요? 민수 옷이 벌써 다 작아져서 새로 사야 하는데 할인 많이 하는 쇼핑몰 알면 좀 알려줘요~, 요즘은 애들 옷이 왜 그렇게 비싼지 할인 받지 않으면 못 사겠어요.”

“에휴~, 나도 그게 고민이에요. 주연이도 옷 사줄 때 됐는데 지난번에 사 입힌 옷들이 다 몇 번 못 입고 그냥 버리게 생겼잖아요. 동생도 없는데 누구 물려줄 사람도 없고…. 아~ 아까워.”



영·유아 옷을 교환하거나 중고품을 판매하는 곳을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믿을 만한 곳을 찾기가 어려웠다.
개개인이 한두 벌씩 판매하는 블로그나 카페 게시물을 일일이 찾아내는 게 세일하는 쇼핑몰 찾기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는 몇 번 입히지도 않는 비싸고 예쁜 옷은 아예 사주지도 못하겠어요. 그냥 막 입히는 것만 사게 된다니까.”

민수 엄마는 요즘 밤마다 인터넷 쇼핑에 푹 빠져 있다. 명품 가방 보느라고? 신상 구두 구경하느라고? 그러면 오죽 좋으련만, 아쉽게도 아니다. 민수 엄마가 찾고 있는 건 싸고 예쁜 아이 옷이다. 자고 일어나면 죽순처럼 쑥쑥 자라는 아이는 철마다 새 옷을 사 입혀야 한다. 처음엔 예쁜 옷을 사서 인형처럼 입히는 게 아기 키우는 재미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몇 번 입히지도 못하는 옷들이 너무 아까웠다.

아이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든다지만 그중에 옷값이 제일 아까운 것 같다. 열심히 인터넷을 뒤져 싸고 좋은 옷을 찾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고 귀찮은 일이다. 게다가 작아진 옷들을 버리려니 그것도 너무 아깝고, 팔자니 일일이 옷 사진을 찍어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아이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주연 엄마, 우리 어린이집에서 엄마들끼리 물물교환 하자고 한번 건의 해볼래요? 필요한 사람끼리 아이 옷을 바꿔 입히면 좋잖아요.”

“아~ 좋은 생각이긴 한데 엄마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서 물물교환 장터를 운영해줄 여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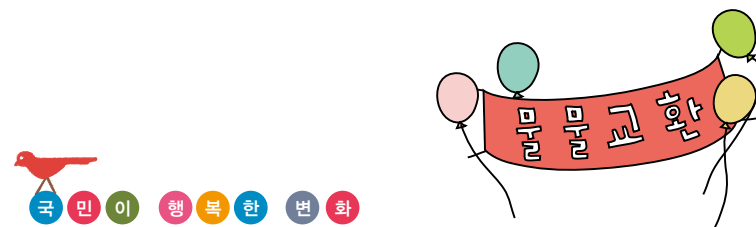
“그럴까요? 그래도 필요한 사람끼리 교환하는 게 절약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그런 장터가 있는지 말이에요.”

민수 엄마는 그날부터 ‘폭풍 검색’을 시작했다. 영·유아 옷을 교환하거나 중고품을 판매하는 곳을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믿을 만한 곳을 찾기가 어려웠다. 개개인이 한두 벌씩 판매하는 블로그나 카페 게시물을 일일이 찾아내는 게 세일하는 쇼핑물 찾기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도 목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민수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국민행복제안 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주연 엄마, 내가 만들었어요. 영·유아 옷 공유하는 장터 말이에요. 하하. 국민행복제안센터에 건의했더니 구청에서 영·유아 옷 공유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곧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옷을 기부하면 적립금이 쌓이고, 그 적립금으로 기부된 다른 옷을 살 수 있대요. 아무래도 여러 어린이집이 함께 하니깐 옷의 종류도 다양하겠죠? 우리 어린이집도 빨리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기대된다. 비싼 옷들이여, 안녕!”



무력무력 자라는 아이들 모습을 보면 사랑스럽고 뿌듯하지만, 얼마 입지 못하고 버려야 하는 아이들 옷을 보면 아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제안인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거점으로 영·유아 옷을 나누는 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재활용이 가능한 작아진 옷들을 교환함으로써 가게 소비도 절감하고 과잉생산으로 인한 환경·자원 보존 및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서울시 중랑구에서는 제안인의 국민행복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바탕으로 아이 옷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내가 먹는 약들,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합시다!

“여보, 이 약들 좀 정리해봐요. 무슨 약이 이렇게나 많아요? 이거 다 처방 받고 지어 온 거 맞죠?”

설희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남편을 다그쳤다. 40대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아프다고 골골대는 남편. 게다가 어찌나 약을 좋아하는지 조금만 아파도 약국부터 찾아가서 이 약 저 약 사 들고 와 입에 털어 넣는다.

“그럼, 다 내가 직접 가서 지어 온 것들이야. 그냥 거기 쓰여 있는 대로 먹으면 되는데 뭘 정리해? 그냥 놔둬~!”

“아니, 이 많은 걸 모두 한꺼번에 먹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보기엔 너무 많아 보이는데... 정말 의사나 약사가 이거 다 먹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어? 아니, 일일이 다 물어본 건 아니지... 이건 목 아플 때, 이건 비타민 D 보충제, 이건 피곤할 때, 이건 무릎 아파서 먹는 약이야.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안 먹을 수도 없잖아. 그리고 비타민 같은 건 그냥 아무 때나 먹어도 되지 않나?”





“스마트폰에 앱 하나 다운로드해서 확인해보세요. ‘온라인의약도서관’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약을 검색해볼 수 있고, 자신이 먹는 약을 저장해 관리할 수도 있어요. 남편분 스마트폰에 설치해주시면 걱정을 좀 덜하시겠네요.”

“어머! 아니에요. 약도 같이 먹어도 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약을 지을 때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을 약사나 의사에게 알려줘야 함께 먹어도 되는 걸로 처방해주죠. 그것도 모르고 이제까지 이 많은 약을 다 한꺼번에 먹었던 말이에요? 으이구!”

건강은 그렇게 챙기면서 약 하나 제대로 먹을 줄 모르는 남편 때문에 설희씨는 화가 났다. 저렇게 구분별하게 약을 먹었다가는 나중에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

“아무튼, 우선 그 약들 오늘은 먹지 말고 그냥 출근해요. 한꺼번에 다 먹어도 되는 건지 내가 알아볼 테니까.”

아무래도 남편에게 그냥 맡겼다가는 또 저 많은 약을 그냥 버리거나 한꺼번에 다 먹을 것 같아 설희씨는 자신이 나서기로 했다. 다음 날, 그녀는 약봉지를 들고 집 근처 단골 약국을 찾았다.

“선생님, 이거 우리 남편이 요즘 먹는 약들인데요. 한꺼번에 다 복용해도 되나요? 남편이 그냥 지어 와서 한입에 털어 넣더라고요.”

“네, 한번 봐드릴게요. 남편분이 요즘도 약을 많이 드시나봐요? 우선

지금 가지고 오신 것들은 한꺼번에 복용해도 괜찮네요. 앞으로 걱정되시면 스마트폰에 앱을 하나 다운로드해서 확인해보세요. ‘온라인의약도서관’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약을 검색해볼 수 있고 자신이 먹는 약을 저장해 관리할 수도 있어요. 남편분 스마트폰에 설치해주시면 걱정을 좀 덜하시겠네요.”

“와~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우리 부부 스마트폰에 꼭 설치해야겠네요. 특히, 약이라면 만병통치인 줄 아는 우리 남편 스마트폰에는 꼭 설치해야죠. 하하.”



시중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한 복용을 위해 제품 포장 또는 용기에 성분, 효능,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표기되어 있지만 이를 유심히 살펴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뿐더러, 약사나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약을 잘못 복용하여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신력 있는 의약품 정보 제공 앱을 개발해 달라’는 제안이 접수되었다 식약처는 먼저 ‘온라인의약도서관’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국민들이 의약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자신이 복용 중인 약의 정보를 저장하여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추가로 개발, 제공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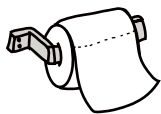
개방화장실 꼭꼭 숨기지 말고 모두에게 알려주세요!

아침 출근길, 경진씨는 마음이 다급해졌다.

‘이 근처에 어디 화장실 없을까? 아침에 뭘 잘못 먹었나?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지하철역까지는 아직 10분이나 더 걸어가야 하지만 어디에도 공중화장실은 보이지 않았다. 배가 살살 아파오면서 경진씨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매일 지나다니는 길이지만 이 근처에서 공중화장실을 본 적이





“그나저나 ‘개방화장실’이란 게 있는지 나만 모르는 거였나? 세상에 이렇게 괜찮은 제도가 있다니!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정말 대단한걸? 앞으로 또 화장실을 못 찾는 일이 생기면 곤란하니 출근길에 있는 개방화장실을 모두 찾아 기억해놔야겠다.”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아무 집이나 가게에 들어가 화장실을 써도 되겠냐고 허락받을 배짱은 없었다. 요즘은 인심이 야박해진 것인지 사람들이 남의 화장실을 함부로 써서 그런지 상가 건물의 화장실이 모두 잠겨 있어 예전처럼 급할 때 아무 건물에나 들어가 이용하기도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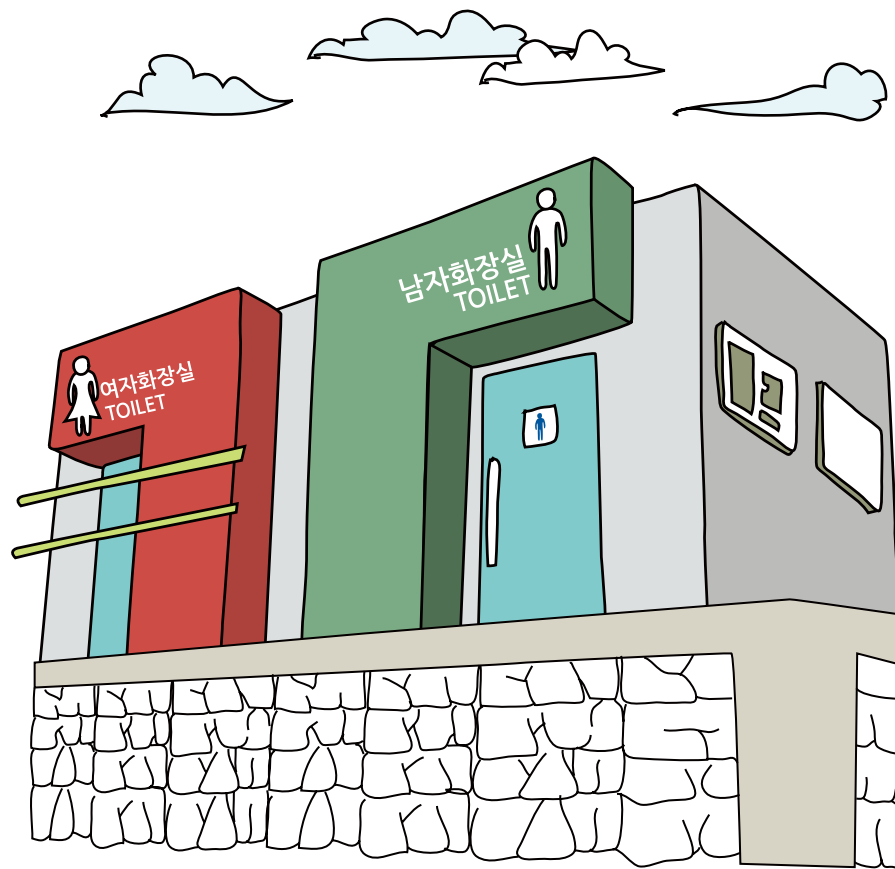
‘헉~ 정말 큰일났네, 큰일났어. 이러다가 실수라도 하면 출근도 늦고 이 나이에 웬 망신이야..., 진짜 울고 싶다. 집으로 돌아가기에도 너무 멀리 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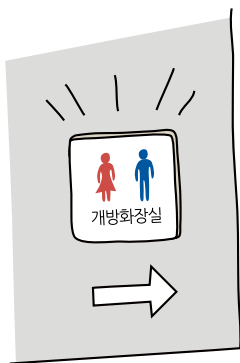
경진씨는 종종걸음으로 지하철역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아무래도 근처에서 화장실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빨리 뛰어 지하철역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식은땀을 흘리며 1분 정도 걸었을까, 갑자기 경진씨의 눈에 반가운 다섯 글자가 보였다.

“개방화장실!”

한 건물의 입구에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개방화장실이라고 쓰여 있는 표지판은 처음 봤지만 경진씨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앗! 저건 뭐지? 개방화장실? 아무에게나 개방한다는 뜻인가? 그럼 나도





‘와우~, 정말 죽다 살아났네! 여기서 화장실 못 찾았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나저나 ‘개방화장실’이란 게 있는지 나만 모르는 거였나?’

이용해도 되는 거겠지?’

이런저런 생각할 틈도 없이 경진씨는 우선 건물 문부터 열고 들어가 화장실을 찾았다. 1층에 있는 화장실은 열려 있었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화장실에 들어간 경진씨는 속 시원하게 볼 일을 마무리하고 나올 수 있었다.

‘와우~, 정말 죽다 살아났네! 여기서 화장실 못 찾았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나저나 ‘개방화장실’이란 게 있는지 나만 모르는 거였나? 세상에 이렇게 괜찮은 제도가 있다니!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정말 대단한걸? 앞으로 또 화장실을 못 찾는 일이 생기면 곤란하니 출근길에 있는 개방화장실을 모두 찾아 기억해놔야겠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경진씨는 인터넷으로 개방화장실의 위치를 검색했지만 잘 찾아지지 않았다. 시청에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개방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경진씨는 조금 실망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그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다니…. 이런 제도야말로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야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지역에서든 그곳의 문화 수준을 알아보려면 공중화장실에 가보라는 말이 있다. 화장실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고 깨끗하면 다른 곳은 살펴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가.

우리나라는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제 행사의 유치를 계기로 공중화장실 시설 및 환경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크게 개선했으며, 2004년부터는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 소유주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개방화장실 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설치된 개방화장실에는 시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표지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막상 이용하려고 할 때 찾지 못해 난감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제안인은 시내에 운영 중인 개방화장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관련 정보를 수월하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개하자는 내용의 국민행복제안을 신청하였다.

고양시는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마다 개방화장실 신청을 접수해 확충하고 있으며,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건물에는 화장실 관리용품 비용을 지원하는 등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민행복제안센터로 접수된 시민의 제안을 수용하여 공중화장실 제도 및 현황 등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고양시민뿐 아니라 고양시를 찾아오는 방문객의 편의를 크게 증진시켰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법률 홈닥터' 알고 있나요?

소영씨는 요즘 걱정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녀는 뇌출혈로 쓰러져 식물인간이 된 여동생을 돌보고 있다. 남편과 사별한 동생에게는 두 자녀가 있어 그 아이들까지 소영씨가 보호자가 되어 돌봐야 한다. 소영씨도 넉넉지 못한 형편이지만 어떻게든 동생을 살리고 조카들을 지켜주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직계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병원비를 내기 위한 보험금을 신청할 수도 없었다. 보험회사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죄송합니다. 법이 김소영씨를 김소희씨의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요즘 보험금을 노리는 사기도 많아서 쉽게 보험금을 지급해드릴 수는 없네요.”

누워 있는 동생 생각에 더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자신이 분명 보호자가 맞는데 왜 법은 인정해주지 않는지 묻고, 싸우고 싶었다. 하지만 찾아다닌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녀가 들은 이야기는 하나같이 그녀를 더 한숨짓게 만들었다.

“김소영씨 정말 억울하셨겠네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저희가 알아서 처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은 좀 발생하지만 법적으로 보호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소영씨는 매번 한숨을 쉬며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야 했다. 돈, 그놈의 돈이 문제였다. 가난한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돈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라는데, 소영씨는 그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동생 소희씨가 누워 있는 병원으로 갔다. 식물인간이 되어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동생과 조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소영씨는 듣지도 못하는 소희씨에게 뉘두리를 했다.

“소희야, 미안하다. 내가 가난해서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나봐. 어쩔 그렇게 세상은 나를 믿지 못하는 걸까.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정말 미안해.”

하지만 막막한 현실도 그녀를 막을 순 없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청 복지과 담당자를 찾았다. 소영씨는 자신과 동생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률 상담 정책은 없는지 물어보았다.

“김소영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우리 구청에서 법무부와 연계해서 ‘법률 흠닥터’라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될





소영씨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좋은 제도를 자신도 몰랐고 주변 사람들도 모른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그녀는 국민행복제안센터에 글을 남겼다.

“것 같아요. 제가 그분 연락처를 드릴게요. 한번 찾아가보세요.”

“아, 네! 그런 서비스가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영씨는 그길로 구청에서 소개해준 지역 법률 흠닥터 박계옥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박 변호사는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꼭 도와주겠노라고 약속했다. 박 변호사의 말만으로도 소영씨는 천만대군을 얻은 것처럼 든든했다. 상담 후 며칠 뒤, 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김소영씨, 드디어 방법을 찾았어요.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동생분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김소영씨가 보호자 자격을 얻게 되어 법률 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동생하고 조카 돌보시느라 바쁘실 테니 서류 작업 등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잘될 거예요.” 박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영씨는 동생의 성년 후견인으로 선정되었다. 까다로운 심사 과정도 박 변호사 덕분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소영씨

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좋은 제도를 자신도 몰랐고 주변 사람들도 모른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그녀는 국민행복제안센터에 글을 남겼다.

“법률 흠닥터 덕분에 어려운 일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으면 법률 상담도 받기 힘들더군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법률 흠닥터를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더 많은 사람이 법률 흠닥터를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건의해봅니다.”



법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은 법률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적시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또한 기존의 법률 구조 서비스는 주로 소송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그 이전의 법률 상담·법교육 등 1차 법률 서비스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법무부는 기존의 법률 구조 인프라와 지역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연계해 2012년 ‘법률 흠닥터’ 사업을 출범했으나 제도 시행 초기의 한계로 홍보가 다소 미흡했다. 제안인은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법률 흠닥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전국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제안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해당 제안을 채택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를 대상으로 ‘법률 흠닥터’ 사업의 온라인 홍보를 위한 협조를 구했다. 그 결과, 시민들의 법률 흠닥터 사업 인지도가 상승하고 대국민 접촉 빈도가 실제로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산책로 나무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빠, 이것 좀 보세요! 나무에 못을 박아 로프를 연결했어요. 나무가 아파 보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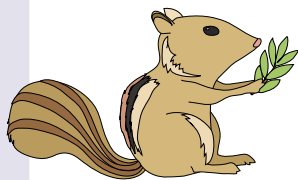
“뭐? 어디 보자. 허허… 멀쩡한 나무에 못을 박았네. 아마도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

“그래도 나무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못을 박아야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아마 나무에 못을 박아 줄을 연결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었을 거야. 아빠가 나무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해볼게.”

유치원생 아들과 한라산 이승악오름 생태탐방로를 오르던 정수씨는 조금 의아한 광경을 목격했다. 산책로에 손잡이 역할을 하는 로프가 나무에 못을 박아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





한라산 이승악오름 생태탐방로를 오르던 정수씨는 조금
의아한 광경을 목격했다. 산책로에 손잡이 역할을 하는
로프가 나무에 못을 박아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동행한 아들 기동이가
나무가 아플 것 같다고 걱정해 한 번 더 보게 되었다.

쳤을 텐데 동행한 아들 기동이가 나무가 아플 것 같다고 걱정해 한 번 더
보게 되었다.

나무가 아프겠다고 마음 아파하는 아들을 보고 정수씨는 그 따뜻한 마음
에 감동받았다. 그리고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고 싶어 바로 그날
국민행복제안센터 홈페이지에 건의의 글을 올렸다. 나무에 못을 박지
않고 로프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게 그 내용이
었다.

“아빠, 한라산에 못이 박힌 나무들은 어떻게 됐어요?”

“응, 아빠가 나무들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해봤어. 곧 연락이 올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서귀포시의 담당자로부터 답변이 왔다.

‘선생님의 제안대로 나무에 박혀 있는 못을 제거할 예정이며 향후 안전
로프를 설치할 때 나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혹시 주말
에 저와 함께 둘레길을 탐방하면서 그 외 개선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기동아, 한라산 나무를 관리하시는 아저씨에게서 연락이 왔어. 나무들
에 박힌 못을 빼주시겠대. 그리고 다음에 같이 생태탐방로를 걸으면서
더 고쳐야 할 점이 없는지 살펴보자고 하시는데? 기동이 생각은 어때?”
“와~ 정말요? 아빠 대단해요! 이제 나무들이 안 아프겠네요. 정말 다행
이에요. 한라산 담당 아저씨하고 탐방로를 같이 걷는 것도 찬성이에요.
나무들이 아프지 않은 산책로를 만들고 싶어요!”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정수씨는 흐뭇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
드는 데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성취감 때문일까? 앞으로 더 개선할
점을 함께 찾아보자는 담당자의 적극적인 제안이 아들을 더 신나게 만든
것 같았다. 담당자와의 산행에 들떠 있는 아들을 보니 정수씨도 스스로
뭔가 큰일을 이뤄낸 것 같아 마음이 벅차올랐다.



제주도 한라산의 이승악오름 생태탐방로를 오르던 제안인은 안전 로프를 고정하기 위해
커다란 대못이 박혀 있는 나무들을 발견하고 가슴 아픈 생각이 들었다. 굳이 나무에 대못을
박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 해당 탐방로의 관할 기관인 서귀포시청에 이를 제안하였다.
서귀포시청은 제안인의 취지에 적극 공감해 해당 제안을 채택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제안인과 함께 현장을 탐방하며 문제점을 함께 찾는 등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로 임했다.
이승악오름 탐방로 나무에 박힌 대못을 제거함은 물론, 향후 탐방로 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에도 나무가 아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를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국민행복제안 스토리북
국민이 만든 행복 이야기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발행인 이성보

발행일 2015년 7월

기획 국민신문고과

글 심효진 **일러스트** 배선아

디자인·인쇄 디자인 피콕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 24, 반디앤루니스, 대교리브로 등 인터넷서점과 국민권익 소식 어플리케이션에서 전자책(e-book)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간등록번호

11-1140100-000134-01



국민권익위원회
 고령자·부패방지·행정심판 제도개선